

3-4-2018

**공공신학에 기초한 고령화시대의 노인목회 방안: 가좌제일교회를  
중심으로**

Ki Won Jang 장기원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Recommended Citation**

장기원, "공공신학에 기초한 고령화시대의 노인목회 방안: 가좌제일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8.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mailto:archives@fuller.edu).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AN EFFECTIVE STRATEGY FOR ELDERLY MINISTRY BASED ON PUBLIC THEOLOGY IN THE AGING KOREAN SOCIE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GAJWAJEIL CHURCH**

written by

**KI WON JANG**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

Euiwan Cho



---

Wong Gil Shin

AUGUST 28, 2018

**AN EFFECTIVE STRATEGY FOR ELDERLY  
MINISTRY BASED ON PUBLIC THEOLOGY IN  
THE AGING KOREAN SOCIE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GAJWAJEIL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KI WON JANG**

AUGUST 2018

공공신학에 기초한 고령화시대의 노인목회 방안  
-가좌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조 의 완 교수

장 기 원

2018년 8월

## Abstract

An Effective Strategy for Elderly Ministry based on Public Theology in the Aging  
Korean Socie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Gajwajeil Church

Ki Won Jang

Doctor of Ministry

2018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approaches the reality of increasingly necessary ministry for the elderly in an aging society, with a life expectancy of one hundred years, using a public theology perspective. It offers a foundational, evangelical way for the elderly to enjoy their lives, based on the author's experience of ministry for the elderly at Gajwajeil Church. Moreover, this research proposes a ministry direction for the local church to effectively serve the neighborhood's elderly through the church's silver ministry and worship.

This paper has six chapters. Chapter 1 introduces the research motive, purpose, scope, and method. Chapter 2 examines problems of an aging society and the need for ministry for the elderly. It analyzes contemporary Korean society based on the reality of its aging population and relevant problems, which warrant professional ministry for the elderly.

Chapter 3 discusses a theological approach to aging society and silver ministry. First, it gives a biblical understanding of the elderly. Then theological principles for the local church and silver ministry are reinterpreted from the views of public theology and covenant ethics.

Chapter 4 provides current examples of local churches' silver ministries. Daegu Dongshin Church and Ilsan Kwangsung Church are especially noted. Then chapter 5 develops silver ministry possibilities for Gajwajeil Church. It presents justification for silver ministry as the desired ministry for the church's public

ministry. The church's current programs—in their beginning stages—are evaluated and used as primary ways to execute the vision. The conclusion, chapter 6, summarizes the content of the study and provides suggestions for the future.

The primary purpose of silver ministry is for the local church, as a public church, to enable the elderly to abundantly enjoy their lives in a way only possible in the church. Such life is composed of assurance of spiritual salvation, hope for heavenly eternal life, solutions to loneliness via church community, and physical services and caretaking. Though a single congregation's practice may be small, ministry for the elderly carried out together by churches in a locale can make a noticeable impact on a society.

Theological Mentors: Euiwan Cho, PhD

Wong Gil Shin, PhD

## 감사의 글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하게 하시고 학위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성실함으로 논문을 지도하면서 좋은 길과 방향을 제시해주신 조의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회 중에 논문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가좌제일교회 당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면서 깨달은 지식과 통찰력이 앞으로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뒤에서 기도하며 지지해 주신 어머니님 남윤자 권사님과 이모님 남옥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논문을 이유로 많이 관심 가져 주지 못했던 사랑하는 아들 대현, 종현이와 곁에서 지지하며 가장 큰 힘이 되어 준 아내 조남숙 사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고령시대에 한국교회가 가야할 방향을 고민하며 삼대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께 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모든 감사하는 분들을 향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10월 장기원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 방법과 개요 .....	5
제 2 장 고령사회의 문제와 노인목회의 필요성 .....	6
제 1 절 현실분석 .....	6
1. 한국사회의 고령화 현상 .....	6
가. 저출산과 압축형 고령화 .....	7
나. 정치적 변화와 혼란 .....	9
다. 하류 노인의 등장 .....	10
라. 사회적 문제 .....	12
마. 노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의 변화 .....	16
2. 지역교회 내의 고령화 현상 .....	17
가. 교회학교의 감소 .....	17
나. 재정의 감소 .....	18
다. 봉사자의 감소 .....	19
라. 세대간의 갈등 .....	19
제 2 절 노인목회의 필요성 .....	20
1. 지역사회 안에서 노인목회 필요성 .....	20
가. 복음증거의 필요성 .....	21
나. 섬김(돌봄)의 필요성 .....	23
2. 지역교회 안에서 노인목회 필요성 .....	24
가. 성도의 존엄한 삶을 위하여 .....	26
나. 연대하는 삶을 위해 .....	29
다. 전문화된 노인사역을 위해 .....	31



라. 죽음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를 돕는 목회 .....	34
제 3 장 노인목회를 위한 성경적 신학적 근거 .....	38
제 1 절 성경적 노인에 대한 이해 .....	38
1. 구약에 나타난 노인의 소명과 노인 상 .....	39
가. 공경의 대상으로서 노인 .....	39
나. 지혜자로서의 노인 .....	42
다. 권위자로서의 노인 .....	43
라. 약자로서의 노인 .....	45
2. 신약에 나타난 노인 .....	46
가. 공경의 대상으로서 노인 .....	46
나. 겉사람은 늙아져도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노인 .....	47
다. 구제의 대상으로서의 노인 .....	48
제 2 절 노인목회의 신학적 원리 .....	49
1. 공공신학적 원리 .....	50
가. 공공신학의 성경적 기원 .....	50
나. 한국교회와 복음주의 안에서의 공공신학 .....	51
다. 공공신학의 다양한 견해 .....	52
2. 소명으로서 공공신학 .....	55
3. 코이노니아로서 공공신학 .....	58
제 3 절 사랑과 언약에 대한 기독교 윤리 .....	61
1. 사랑에 대한 기독교 윤리 .....	62
2. 언약에 대한 기독교 윤리 .....	64
제 4 장 노인목회 사례연구 .....	67
제 1 절 대구동신교회 .....	67
1. 실버대학의 목적 .....	68
2. 조직 및 역할 .....	69

3. 실버대학 업무분담 .....	70
4. 운영의 특징 .....	71
가. 교회력을 기준으로 운영 .....	71
나.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조사와 전략적 복음전도 .....	72
다. 운영내용 및 교과목 .....	72
라. 반별 담임제도 .....	73
마. 학생자치회 .....	74
5. 평가 .....	74
제 2 절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 .....	76
1. 노아스쿨의 운영목적 .....	78
2. 조직 및 역할 .....	78
3. 노아스쿨 운영의 특징 .....	80
가. 은사자 중심의 사역 .....	81
나. 사전 등록 .....	81
다. 투명한 재정 운영 .....	82
라. 본 교회 노인성도들을 위한 돌봄 .....	83
4. 평가 .....	83
제 5 장 가좌제일교회 노인목회 방안 .....	85
제 1 절 노인목회 시작 배경 .....	85
제 2 절 공교회로서의 가좌제일교회 사역의 이해 .....	86
1. 교회의 역사, 사명선언문, 정체성 .....	86
2. 가정사역 .....	88
3. 어린이집 운영 .....	89
4. 장애인 사역 .....	89
5. 예손선교회 .....	91
6. 오병이어의 사람들 .....	91
7. 사회교육관 .....	92

제 3 절 가좌제일교회 노인사역과 실버처치 .....	94
1. 노인목회의 배경과 내용 .....	95
가. 전도 .....	95
나. 예배 .....	96
다. 관리 .....	97
2. 가좌제일교회의 실버처치 운영과 실제 .....	97
가. 준비와 시작 .....	97
나. 예배 및 운영 현황 .....	98
3. 평가 .....	99
제 4 절 가좌제일교회 장기적 노인목회 전략 .....	101
1. 교회 노인목회의 단계별 추진 과정 .....	101
2. 가좌제일교회 노인목회의 방향성 .....	103
3. 노인목회의 모델 .....	104
제 6 장 결론 .....	108
부록 .....	112
참고문헌 .....	116
Vita .....	119

## <표 목차>

<표 1> 각국의 고령화 속도 비교 분석표 .....	8
<표 2> 10만 명당 연령별 자살지수 통계(2015) .....	14
<표 3> 동신교회 노인대학 업무분담표 .....	69
<표 4> 노아스쿨 조직 및 역할 .....	79

## <그림 목차>

<그림 1> 가좌제일교회 Logo-Church Identity .....	87
--	----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최근 방송과 언론 매체들을 통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저출산과 고령화’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예견되어 있었으며 2017년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한 첫 해가 되었다. 실제로 2017년 말에 대한민국의 고령 사회 진입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2018년 새해가 시작되면서부터 고령 사회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충격적인 예견들이 공영 방송을 통해 방영되었다.<sup>1)</sup> 이상훈은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를 말한다. 그리고 고령 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 구성비가 14% 이상일 때를 말하며 초 고령화 사회는 20% 이상일 때로 분류한다.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17년 만인 지난해 2017년에 ‘고령 사회’가 되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sup>2)</sup>

예상대로라면 앞으로 10년 안에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잘못된 인구정책에 대해 인식하고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 정책은 일방적인 국가의 시책으로만 해결 될 수 없는 전 국민적 의식 개혁과 참여가 요구된다.

1) 이상훈,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개혁과 고령화사회,” 2013, *기독교사회윤리* 제25집, 51.

2) Ibid.

2018년 새해가 되면서 공영방송인 KBS는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방송을 재방영하였다. 연초부터 2015에 방송되었던 고령화와 인구절벽에 대한 내용을 재방영한 것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방송을 통해 전 국민들에게 변화된 인구 구조적인 상황과 그로 인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함께 고민하고자 의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장진 영화감독에게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영화감독으로서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미래 사회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연구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그는 일본, 독일 스페인 등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며 이렇게 보고 하였다. 지금 이대로의 인구 감소에 따르면 22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는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 안에서도 부산이 최초로 사라질 도시로 추정 된다고 발표하였다. 충격적인 연구 발표이다.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실제로 출산율 하락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2100년 한국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2천만 명으로 줄어든 것이고, 2300년이 되면 사실상 소멸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 북을 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25명으로, 224개국 가운데 거의 세계 최하위권인 220위이다.<sup>3)</sup>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삶의 변화와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종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장수한다는 것은 인간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00세 시대에 대한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과연 더 높은가?”에 대한 질문에는 결코 긍정적이지가 않다.

2050년 한국인 사망의 주된 원인은 질병이 아니라, 생계형 자살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홀로 지내는 노인들의 고독사(孤獨死)는 또 다른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요양비나 의료비, 국민연금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젊은 세대들과의 사회적 갈등도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성경은 장수를 복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현실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장수가 복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100세 시대’라는 말에 현대인들은 많은 염려

---

3) 명견만리, KBS 2015년 4월 방송.

와 심지어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100세 시대’는 이제 사회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

100세 시대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지역의 교회들과 신학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역 교회공동체의 성도들의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교회를 유기적 생명체로 볼 때, 이 유기적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의 변화는 교회의 조직과 사역 및 실제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노인 성도들이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고 방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화와 100세 시대는 공동의 삶의 문제이며 공적인 이유이기에 민간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적 참여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도 그 책임과 참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노인들에 대한 섬김과 돌봄을 사회적 차원에만 의존할 수 없고 교회도 공공 신학적 관점에서 복음전파와 함께 준비해야 한다.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문제 라고 하면 네 가지 고통 즉 빈고(가난), 병고(질병), 고독고(외로움), 무위고(할 일이 없음)를 거론한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노인문제를 해결 하고자 노인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이나(빈고) 건강(병고)에 대한 삶의 객관적인 조건에만 기초한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노인의 문제를 재정적인 관점에서만 풀어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국민연금지급이나 노령수당지급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초 고령화 사회는 무엇보다 역할 활동의 제한과 관계의 감소, 사회적 단절로 인한 외로움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통한 소속감과 관계를 통한 접근법이 병행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며 지역의 교회가 공공의 책임을 공감하고 시대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줘야 할지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

본 연구자는 지역 교회가 이러한 고령화 사회의 노인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복음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교회만이 제공할 수 있는 복음을 통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를 다시 세우며, 삶의 다양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교회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민해 나아가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2011년 2월부터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위치한 가좌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사역하고 있다. 가좌제일교회는 부교역자 시절에 섬겼던 교회인데, 교회를 떠난 지 12년 만에 부교역자가 아닌 담임목사로 다시 사역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은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젊은 세대의 성도들은 사라지고 12년 전의 주요 성도들이 그대로 교회 전반적인 사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지역교회로서 가좌제일교회의 최근 상황을 살펴보아도 교회가 점점 고령화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본인이 처음 가좌제일 교회에 부임해 왔을 당시 장년 성도들의 평균 연령은 57세였다. 그러나 만 7년이 지난 2018년 1월 현재 장년 성도들(청년부 제외)의 평균 연령은 63세이다. 또한 지난 7년간 새로 등록한 새 신자들의 평균연령도 57세로 나타나고 있다.

부임 초기에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 교회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특화된 사역을 실천하였다. 그래서 다음세대가 이용하는 공간을 아이들이 좋아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그들이 예배드리고 모이기에 적합한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나 다음세대를 포기 할 수 없음과 동시에 빠르게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적 상황을 인식해 볼 때 실버세대를 위한 사역의 준비도 병행되어야 함을 깨닫는다. 준비되지 못한 고령사회가 국가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듯이, 준비되지 못한 고령교회 공동체 또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교회마다 늘어나는 노인 성도들을 위한 노인 목회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한국사회 구성원 중에 노인들이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면, 교회도 동일한 성도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학교와 더불어 노인들을 위한 사역과 목회 적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논문을 통해 고령화와 100세 시대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 지역의 교회가 가져야 할 노인 목회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을 공공신학적인 관점에서 논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인이 섬기고 있는 가좌제일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노인목회의 내용을 살펴보고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본질적이며 복음적인 대안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교회가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역교회로서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사역을 어떻게 전개해

나아가야 할지를 가좌제일교회의 노인 사역과 실버처치 예배를 통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 방법과 개요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주로 고령사회와 노인 사역에 대한 책과 자료를 통한 문헌조사와 목회 현장에서 노인 목회를 실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례연구, 그리고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가좌제일 교회의 노인 사역과 실버처치를 통한 현장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은 총 여섯 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제 1장에서는 본 논문을 쓰는 연구 동기와 목적, 그리고 연구 범위와 방법을 기술한다.

제 2장에서는 고령 사회의 문제와 노인 목회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대한민국 고령사회의 현실과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와 교회 안에서 노인 목회의 필요성에 대해 논증한다.

제 3장에서는 고령 사회와 노인 목회를 위한 신학적인 근거를 논의한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노년의 이해와 지역교회와 노인목회의 신학적 원리를 공공신학적 관점과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접근으로 해석한다.

제 4장에서는 목회 현장에서 노인 목회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노인 목회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특히 대구 동신교회와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노인목회 사역과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한다.

제 5장에서는 가좌제일 교회의 노인목회 사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가좌 제일교회가 실천해 나아가고자 하는 노인목회의 비전을 세워보고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실천하고 있는 노인 사역 프로그램과 실버처치를 중심으로 노인 목회 사역 활성화 방안들을 제시한다.

제 6장은 본 논문의 결론을 담고 있는 장으로서,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앞으로 가좌제일교회가 노인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언한다.

## 제 2 장

### 고령 사회의 문제와 노인 목회의 필요성

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삶의 변화와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와 지역 교회 현실을 분석해 보고 지역교회로서 늘어나는 지역의 노인들과 교회 안의 노인성도들을 위한 전문적인 노인목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한다.

#### 제 1 절 현실분석

먼저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지역 교회 내의 고령화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고령화의 특징과 그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를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 이어 지역 교회 내의 고령성도들의 증가로 인한 목회적 현실도 분석해 봄으로써 교회의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노인목회의 필요성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 1.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삶의 변화와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먼저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저 출산으로 인해 단기간에 이루어진 압축형 고령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압축형 고령사회는 정치적으로 변화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하류노인들의 등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노인 자살과 노인 치매와 같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노인에 대

하 일반적인 이해의 변화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 가. 저 출산과 압축형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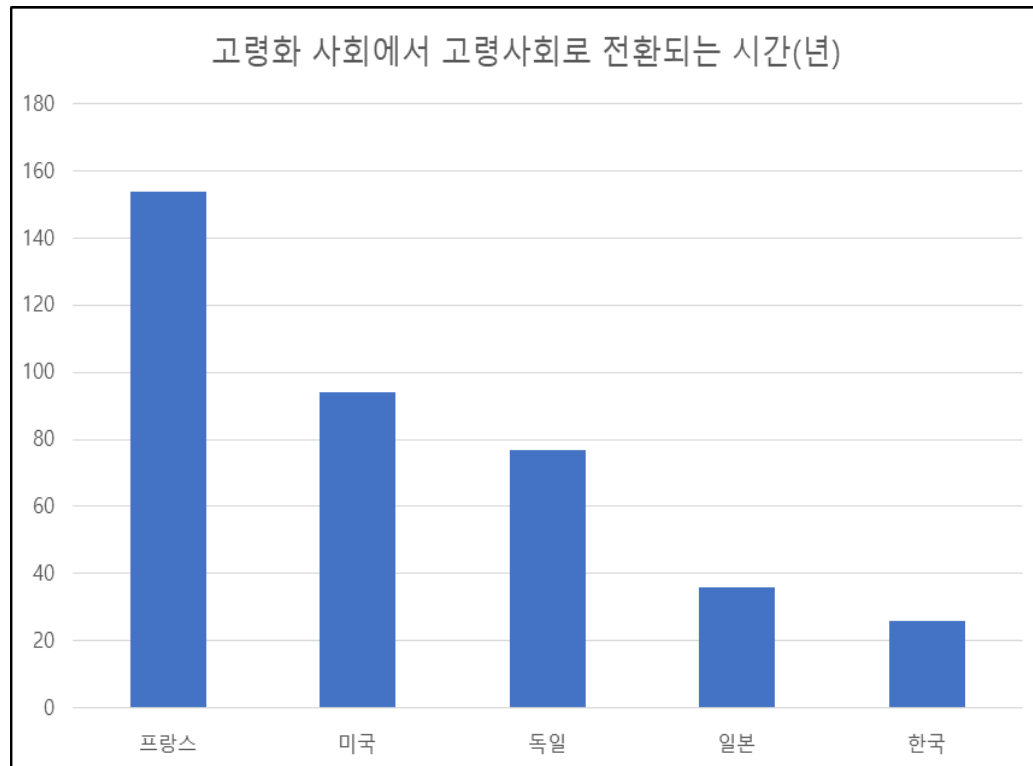
서론에서 이미 언급 했듯이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실제로 출산을 하락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2100년 한국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2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고, 2300년이 되면 사실상 소멸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예견이 현실로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다. 2017년 12월 한 달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출생, 사망 통계를 보면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인구의 자연 감소 현상은 통계청이 인구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 발생한 일이라고 한다.

‘2017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2만 5000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400명(8.8퍼센트) 감소했다. 반면에 사망자 수는 2만 6900명이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1600명(6.3퍼센트) 늘어났다. 국제 이동을 배제한다면 국내 인구는 1900명 감소한 셈이다. 이대로라면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는 예상보다 빨리 다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인구 구조가 당시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통계청은 저위추계에서 한국의 인구 정점을 2022년이라고 예상했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혼인도 2만 7600건으로 집계되어 전년 동월 대비 800건(2.8퍼센트) 감소했다”<sup>4)</sup>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저 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종교 등 사회 전반에 다양한 삶의 변화와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있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속도(speeding)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전환되는데 소요된 시간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154년이 소요 되었고, 미국은 94년, 독일은 77년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은 36년, 한국은 26년 이 소요된 것을 볼 때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엄청난 것이다.<sup>5)</sup>

4) 국민일보, 2018.3.1. 정현수 기자

5)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152.



〈표1〉 각국의 고령화 속도비교 분석표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당면한 문제이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 세대가 함께 고령사회를 인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러기에 사회적 제도나 법안을 마련할 여유도 없이 성큼 다가와 버린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압축형 고령화(compressed aging)로 분류 한다고 한다. 이러한 100세 시대나 고령사회는 단순한 수명연장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혁명(revolution)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장수혁명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장수혁명은 과거와는 다른 삶의 방식과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전 세대에 걸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장수 혁명은 목회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앞에 교회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찾아야 할 것이다. 100세인 성도들을 위한 목회적 차원에서의 변화와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도 준비되지 않은 ‘고령 교회’를 그저 맨 몸으로 받아 들여야만 한다.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본 경험이 없다. 고령화로

인한 시대적 변화는 교회 공동체 내에 노인 성도들이나 교회 밖 지역 노인들도 동일한 상황이다. 특별히 지역교회들은 늘어나는 노인 성도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하고 섬길 것인지 또한 지역의 늘어나는 노인 영혼들을 어떻게 복음화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나. 정치적 변화와 혼란

피터 드러커스는 *21세기 지식경영*에서 선진국의 경우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정치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정치, 사회, 경제의 전 부분에서 노인들의 욕구 표출을 가속화 할 것이며, 노인들의 정치 집단화도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1958년 발족한 미국의 은퇴자 협회 AARP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는 포춘(Fortune)지 설문조사 결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단체로 손꼽히며 미국의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서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협회의 정회원으로는 지미 카터와 조지 부시 등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50세 이상의 회원이 3천만 명 이상이며, 고용된 로비스트만도 150명이나 된다고 한다.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 의료혜택이 돌아가는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를 법제화 하고 기업의 정년제를 폐지시킨 집단이 바로 미국은퇴자 협회이다. 일본의 경우는 미국처럼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지는 못했으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0년에 설립된 JASS (Japan Association of Second-life Service)클럽이나 1996년 설립된 ‘실버인재센터’ ‘고령자 협동조합’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sup>6)</sup>

선진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앞으로 대한민국도 노인들이 중심이 된 정당이 창당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특별한 소일거리 없이 지내오던 대부분의 노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로연금, 노인취업, 노인재산에 대한 세제혜택, 노인주거시설, 노인 건강관리, 노인 여가시설, 노인복지 예산 등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노

6) 김현진, "고령화의 사회. 정치적 영향 -한국과 일본의 경우,"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2004년1호. 2004, 88-90.

인문제를 외면하거나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정치와 정치인은 설자리가 없어질 정도로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커져가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투표참여도가 높은 데가 전체 유권자중 고령자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인 유권자들과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견해 차이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드러커스의 말처럼 노인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적으로 혼란과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와 혼란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의 한 단면이다.

#### 다. 하류노인의 등장

오늘날의 국가 경제는 한 나라에만 국한 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다. 세계화의 맥락에서 나타난 사회, 경제적 특징은 “20대 80의 사회”, 즉 사회적 지위와 부를 점령한 20퍼센트의 사람들과 거기서 배제된 80퍼센트의 가난한 사람으로 나뉘는 양극화 현상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경제적 문제는 이러한 양극화의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있다. 즉,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하고 특히 노년층들의 경제적 빈곤이 하류노인을 양성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이 빚어낸 경제적 하류노인의 등장은 오늘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하류노인이란 생활보호기준 정도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고령자이다. 국가가 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고령자’를 말한다. 하류노인은 생활보조비 외에 수입이 거의 없으며, 저축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고령자를 말한다. 이 사람들은 젊은 시절부터 하류는 아니었다. 한창 일할 시기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다가 노년이 되면서 의료비의 증가와 자녀의 부양 부담, 정신적 연약함으로 인한 다단계나 사기 등으로 순식간에 하류 노인이 된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0.6퍼센트의 4배, 76세 이상은 OECD 회원국 평균 14.4퍼센트의 4.2배에 달했다. 한국은 가장 높은 국가라고 지적했다. 하류노인의 삶은 노인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14.4퍼센트인 것과 비교하면, 66~75세

노인은 3배, 76세 이상은 4.2배로 빈곤율이 높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빈곤율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지만, 호주, 스위스에서는 노인빈곤율이 훨씬 더 높고, 한국은 가장 높은 국가"<sup>7)</sup>라고 지적했다. 하류노인의 삶은 노인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

"100세 시대에 대한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과연 더 높은가?"라는 질문을 해볼 때 그 대답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장수 한다고 해서 인간 삶의 질이 좋아 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해 두지 못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회문화적 흐름 속에 정작 자신의 노후대책은 미처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사회·경제영역에서 은퇴를 하고 난 후, 계속해서 늘어나는 의료비와 생계비는 노인들을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사례가 많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생존의 토대는 경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더구나 오늘날 신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은 탐욕경제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호공존을 위한 경제 활동보다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경쟁과 성과를 추구한다. 이러한 신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의 압축형 고령화는 노인세대의 경제적 하류계층의 노인들을 양성하고 있다. 노후에 대한 제도적 준비나 개인적 준비가 미처 마련되기 전에 도래한 고령사회는 소외된 노인 계층을 더욱 소외 시키게 되었다.

한국노인들의 전반적인 현실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비참하다. 201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둘 중 하나는 빈곤층이다. 중간 소득의 50퍼센트 이하로 사는 이들이다. 다시 말해 "평균적 한국인"에 비해 훨씬 못사는 소외 계층이다. 2007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볼 때 3년 사이에 노인 빈곤율은 더 크게 높아 졌다.<sup>8)</sup> 이러한 하류 노인세대의 증가는 노인 자살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 노인 자살률을 보면, 한국 노인의 비참함은 더 확연하다.

세계보건기구가 172개국의 자살률 총계를 모아 발표하였는데 한국의 70세 이상의 노인자살률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조차 안 되는 압도적 1위를 나타내고 있다.<sup>9)</sup>

7) 연합뉴스, '서러운 노년' 한국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2011년11월

8) 신기섭, "노인층 빈곤율과 자살률 세계1위", 한겨레신문, 2015년 5월 12일자.

9) Ibid.



실례로, 노인 상당수가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노인관리 부실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사망을 해도 시신이 집에 방치되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부모의 사망을 숨기고 연금을 계속 받는 자녀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또 다른 사회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은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낮추고 행복에 대한 만족도도 낮추며 결국 장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갖는 가치와 삶의 영향은 노인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길어진 생명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늘어날 질병과 의료비의 부담은 노인들에게 큰 심리적 불안을 제공한다. 의료비용의 증가나 노인수당의 증가는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의료비용이나 노인수당의 증가는 결국 젊은 세대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치, 사회에서 노인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들의 의견을 외면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의 노인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 복지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노인 복지 확대는 어떤 형태로든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자리를 놓고도 노인들과 젊은이들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 된다.

이미 젊은이들이나 대학생들이 가져야 할 일자리의 상당수가 은퇴자들에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서로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삶은 점점 더 빈곤해지고 있다. 노인 빈곤이라는 말은 노인들의 삶이 고되고 힘들다는 표현이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2013년도 조사(복수응답)에 따르면 ‘건강문제(65.2퍼센트)와 경제적인 어려움(53.0퍼센트)이 가장 크고 그 뒤를 이어 외로움과 소외감(14.1퍼센트), 실업이나 고용불안(6.5퍼센트), 무료함(13.3퍼센트)’ 등으로 나타났다.<sup>10)</sup> 이렇듯 고령사회 문제와 장수 혁명에 대한 불안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

#### 라. 사회적 문제

현재 한국 사회는 배제와 소외의 그늘에서 곤란을 경험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급속도로 싸늘해지고 있다. 세대 간 경

---

10) 통계청, 2014 고령자 통계

제, 정치, 사회적 이해관계가 날이 갈수록 매섭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노인을 경멸하는 언어가 쏟아진다. ‘경로(敬老)’는 옛말이고 ‘혐로(嫌老)’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것은 노년층만이 아니다. 언젠가 노인이 될 미래를 상상하며 20, 30대까지 우리 사회의 ‘혐로(嫌老) 현상’을 걱정한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올해 처음 ‘노인인권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노인 인권 침해와 국민의식 전반을 조사했다. 전국 노인(65세 이상) 1000명과 청년(19-64세) 500명을 설문한 결과 19-39세의 청년들 중 80.9퍼센트가 ‘우리 사회가 노인에 부정적 편견이 있고, 이 때문에 노인 인권이 침해 된다’고 답했다. 노년 혐오는 실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sup>11)</sup> 이러한 분위기 속에 사회의 대표적 노인 문제인 노인 자살과 노인 치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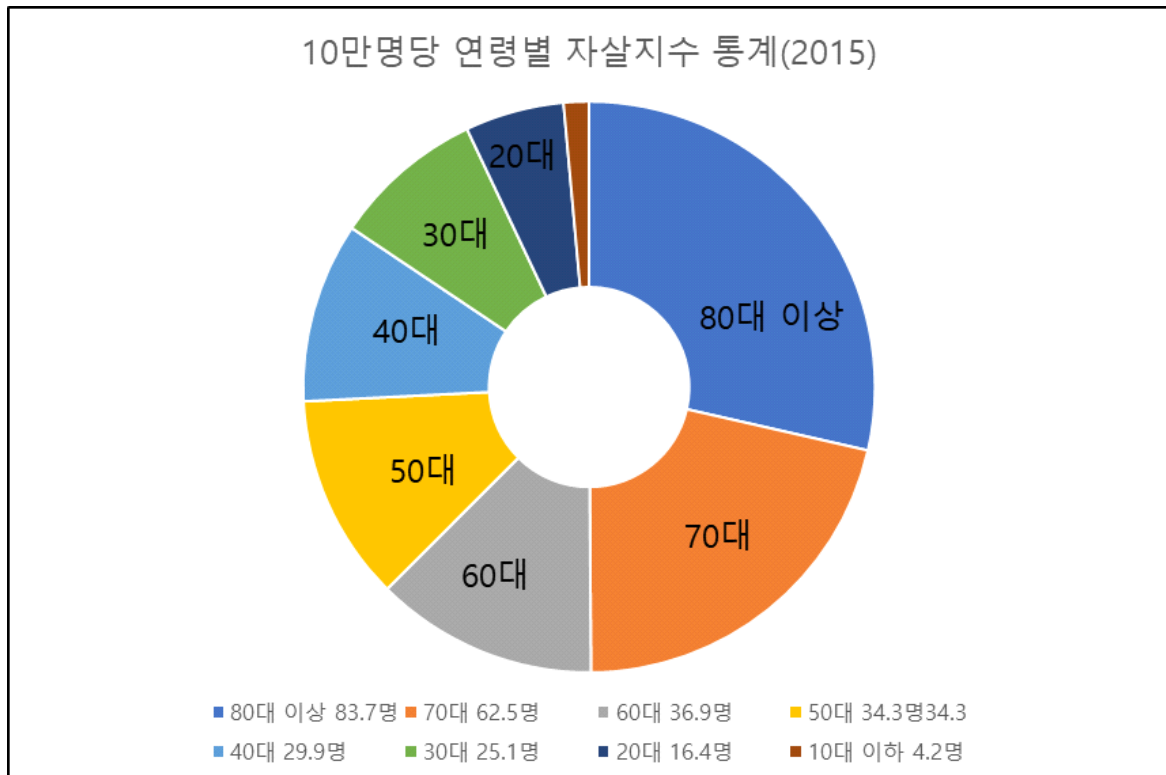
#### (1) 노인자살

많은 통계조사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2050년 한국인 사망의 주된 원인은 질병이 아니라, 생계형 자살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예견대로, 최근 한국사회에서 노인들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생명은 연장되었으나 생계를 유지할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노인들은 경제력의 상실과 사회적 역할의 상실, 나아가 노인들을 혐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더 이상 그 존재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살, 혹은 고독사를 선택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오랜 시간동안 지목되어 왔다. 2015년 연령별 자살률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미세하게나마 자살이 감소한 것으로 보였지만, 70대(8.5퍼센트)와 80대 이상(6.4퍼센트)의 노년 세대의 자살률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11) 조선일보, 2018년 3월 17일. “노인 보는 시선, 급속도로 싸늘해지고 있다.” 안상현 기자.



<표2> 10만 명당 연령별 자살지수 통계(2015)

2014년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노인(65세 이상)의 10.9퍼센트가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노인들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40.4퍼센트)을 가장 많이 꼽았고, 건강(24.4퍼센트), 외로움(13.3퍼센트), 부부, 자녀, 친구와의 갈등 등 단절(11.5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sup>12)</sup>

노인 자살에 일반적인 특징은 독거노인, 빈곤노인, 여성보다는 남성의 자살률이 더 높았다. 인생의 마지막 삶을 아름답게 마치지 못하고 자살로 마치는 일들은 사회적으로 안타까움을 뛰어 넘어 충격을 주고 있으며, 노인 자살은 우리 사회의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노인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것과 그 자살의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자살이라는 사실 그리고 홀로 살거나 빈곤한 생활의 남성노인이 가장 많다

12) 삼성서울병원 공식 블로그. <http://ohhappysmc.com/220907378405>. 노인 자살률 OECD 1위. 전홍진 2017.

는 사실은 고령사회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슬픈 현실이다.

## (2) 노인치매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또 하나의 관과 할 수 없는 현실은 노인 치매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치매와의 전쟁 한 가운데 서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공약을 내세울 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관심은 높다. 2014년에 실시된 국내 치매 인식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치매(43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보다 치매를 더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노인은 주도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질수록 조심성은 많아지고 소극적인 성향도 증가한다.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싫어지고 삶에 대한 의욕도 사라지게 된다. 혹시나 정신을 잃어 함부로 행동을 하고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될까 염려 하는 마음도 늘어난다. 치매나 뇌 손상 등 정신기능 이상으로 인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할 것에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이 증가하면 죽기를 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치매에 대한 국민적 염려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치매 국가 책임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에 치매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치매 의료비 90퍼센트 건강보험 적용 등 사각 지대에 놓인 치매질환자들에게 공공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치매안심국가’가 실현되려면 재정 마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으나 현 정부가 노인치매에 대한 국가적 돌봄의 인식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6’을 발간하였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국의 치매 환자는 72만 4000여명에 달한다. 개인이 지불한 진료비와 간호비, 국가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 지출 등을 합친 치매관리비용은 2015년 기준 연간 13조 2000억 원 (환자 1인당 2033만원)으로 2030년에는 34조 3000억원, 2050년에는 106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sup>13)</sup> 이렇듯 고령사회의 도래와 함께 대한민국은 치매에 대한 현

13) 2017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 13.

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 마. 노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의 변화

지금까지는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와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혁명과도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는 실생활에서 노인들의 사고와 생각을 많이 바꾸고 있다. 노인들이 과거와 다른 삶의 태도와 생활 방식을 갖게 되면서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도 차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 노인에 대한 이해는 고집 세고, 도움이 필요하며, 삶이 열악하고 학습 능력도 떨어지는 사람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노인들은 이러한 부정적이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거부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건강한 노인들은 스스로가 노년의 삶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맞이하려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의료,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신체적인 노화도 점점 늦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과거 환갑이나 고희 잔치를 하던 사회적 풍습이 사라지고 팔순 정도는 되어야 잔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최근 한국 사회는 60대에게 노인대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실례가 되는 분위기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스스로가 노인이라는 이유로 수동적, 비생산적으로 생각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활기 있게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노년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신노년’이라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노인들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회 참여와 활력 있는 삶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거나 민간단체나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해서 활력 있는 노인의 삶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활동 할 수 있는 장(field)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로연금, 노인취업알선 및 고용촉진 제도, 경로당 제도, 경로 우대제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등 정책적,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노인 스스로가 노인의 삶에 대해 재해석하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꿈꾸는 신노년에 대한 변화는 고령사회의 긍정적인 현상이다. 국가, 사회적인 면에서도 그 동안 노인을 주변인으로 인정하고 비생산적이고 비활동적이라는 인식에서 능동적이고 생산적이며 활동적인 존재로 인식하려는 변화는 긍정적인 현실이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이해의 변화는 노인목회를 위한 중요한 현실분

석이다.

## 2. 지역교회 내의 고령화 현상

교회 성도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젊은 세대들은 감소하는 반면 노인 성도들은 증가하고 있다. 특별히 교회학교와 청년들이 줄어들면서 목회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주요 봉사자들의 연령이 고령화 되면서 사역의 세대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 내의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과 그로 인한 영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교회학교의 감소

고령화와 함께 한국교회의 교회학교의 감소는 실로 심각하다.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에서 기독교 총인구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10년마다 1퍼센트씩 추가적인 교회 이탈이 지속될 경우, 저 출산과 고령화의 인구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한국 기독교 전체(이단 포함) 인구는 2060년경이 되면 550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단들의 기세가 더욱 심해진다는 가정을 이 결과에 집어넣으면 2060년경이면, 순수한 기독교 인구는 300만 명으로 감소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일학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교회의 교육부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줄기 시작 했지만 아무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다. 예장 통합 측에서만 지난 10년 동안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가 38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줄었고, 기독교성결교회는 30퍼센트가 감소했다. 사실 한국 교회가 1990년대 후반부터 정체기를 맞고 서서히 감소하는 패턴은 교육부서가 1980년대 초반부터 감소하는 패턴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교육부서의 감소 패턴이 10-15년 후에 곧바로 한국 교회 전체의 숫자 변화와 직결된다는 말이다.<sup>14)</sup>

이렇듯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 학교의 감소는 실로 심각하다. 매년 교회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내 최대 교단 중 하나인 예장통합이 2014년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예장 통합에 소속된 전체교회(8383)개 중 영아부가 없는 교회 비율은 무려 78.5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아부가 없는 교회

14)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II*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41,42.

(77.4퍼센트), 유치부가 없는 교회(51퍼센트), 1학년~3학년 부서가 없는 교회(47퍼센트), 4학년~6학년 부서가 없는 교회(43퍼센트), 중등부 부서가 없는 교회(47퍼센트), 고등부 부서가 없는 교회(48퍼센트)인 것으로 파악됐다.<sup>15)</sup> 이렇듯 교회학교의 감소는 교회사역의 단절을 초래하고 사역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못해 고령교회로 이끌고 있다.

#### 나. 재정의 감소

한국사회의 불안정한 경제구조나 부의 불균형 그리고 높은 실업률은 교회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청년들의 실업률 증가로 교회 재정은 타격을 받게 되고 재정의 감소는 사역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된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다.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30, 40대의 젊은 장년들은 지역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나 교우들 간의 관계성 또는 신앙생활의 회의, 취업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신앙을 떠나고, 자녀교육과 자신의 여가생활에 분주한 젊은 세대들은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이 적어 새로 등록하는 젊은 층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사역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 남아 있는 성도들은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교회는 고령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교회 미래지도*에서 최윤식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벼랑 끝에 선 한국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와 기독교의 위기를 강조한다.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 한국 교회는 성장이 잠시 주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갱신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면 2050-2060년경에는 400만, 아니 300만 명대로 교인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 주일학교는 30-40만 명대로 줄어들 수 있다.”<sup>16)</sup>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교회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젊은 세대들의 수적 감소는 교회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 노인세대가 주류를 이루는 교회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5) LA 중앙일보. 2014년 7월 29일 미주판 27면.

16)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I*, 39.

### 다. 봉사자의 감소

유기적 공동체로서 교회는 몸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가 고령화되면서 교회 내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부족해지고 있다. 은퇴와 고용 불안에 쫓기는 성도들은 교회 사역에 헌신하는 시간을 줄이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도 개인의 직장이나 가정의 안정되지 못하면 교회 내 모임이 위축되거나 사라지게 된다.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은 심리적 불안으로 사역의 주변인이 되어 가고 적극적으로 봉사하려는 봉사자들의 감소를 초래한다. 젊은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젊은 세대들도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교회 봉사의 기회를 놓게 된다.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의 봉사와 헌신이 사라지면서 교회 학교 교사나 성가대 또는 애찬(식사를 위한 봉사)을 위한 봉사자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 교회 공동체는 사회의 작은 모형과도 같다. 전세대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사회로 인한 사회적 현상은 고령교회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의 감소는 부양 부담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힘 있게 일을 해야 할 일꾼들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가좌제일 교회의 찬양대의 경우만 보아도 50~6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70대 80대도 있다. 이런 현상을 보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해서 찬양대를 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젊은 세대들이 활발히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봉사자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교회공동체를 위한 부엌 봉하나 청소 등 육체적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반면,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의 헌신이 사라지고 있어 교회 내 봉사와 헌신의 세대교체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라. 세대 간의 갈등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문화와 사고 방식의 차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에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문화와 사고 방식의 차이는 예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는 과정에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앙의 태도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공동체의 의사결



정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예배 음악이 가장 대표적으로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선호하는 곡들이 다르다. 예배는 어린 아이에서 노인들까지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은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소통보다는 자신들이 선호하는 예배는 고집할 때에 갈등이 지속된다.

고령화로 인한 교회 공동체 안의 현실 분석은 목회 생태계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고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한다. 교회학교의 감소, 재정 의 축소, 봉사자들의 감소, 성도 세대 간의 갈등 심화는 앞으로 목회를 담당하는 목회 자로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 제 2 절 노인목회의 필요성

본 연구자는 노인 목회의 필요성을 지역사회 안에서 노인 목회와 지역 교회차원의 노인목회 필요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지역사회 안에서 노인목회 필요성

교회가 위치한 지역 사회 안에서 노인 목회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지역 사회에 대한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정의하고 싶은 지역 사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의 지리적인 개념을 포함하며, 공통된 주변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사회 집단이다. 이는 교회가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그리스도인과 비 그리스도인 모두를 포함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다. 각 교회들은 지역의 모든 연령 층의 영혼에 대해 항상 열려 있어야 하며 현재 증가하고 있는 노인세대를 위한 전문적인 목회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노인 세대의 구원은 더 시 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린이 목회나 청소년 목 회, 청년목회 등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목회에 치중하고 있다. 반면에 노인들을 위한 노인목회에 대한 필요는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외면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는 더 이상 외면하거나 도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므로 각 교회들은 지역 사

회의 노인목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장년 목회에 포함되어 있던 노인 성도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의 노인목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개 교회가 감당하기 힘든 사역도 지역의 공동체 차원에서 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 힘을 모은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노인목회가 세워져 갈 것이다.

교회는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교회는 항상 지역의 영혼들을 품어야 하며 지역의 영혼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교회들은 선한 연대감을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노인들을 통합적으로 섬겨야 한다.

지역사회 차원의 노인목회를 위해서 교회들은 ‘교회의 5대 사명’인 예배, 전도, 교육, 섬김(봉사), 교제 사역을 통해 지역 사회의 영적 토양을 개량하고 동시에 각 교회들에 대한 선한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복음이 보다 쉽게 수용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행하였던 두 가지 사역이 있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제하는 일이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을 함께 맡아 하다가 사역의 과부화가 생겼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 안에 집사들을 따로 세워 구제사역을 담당하게 하였다. 복음전파와 소외된 이웃을 향한 구제사역은 병행되어야 할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다. 칼뱅은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일은 교회가 가진 책임 가운데 하나라고 보았다. 이런 면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노인목회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의 노인들을 향한 말씀전파와 구제사역 즉 지역의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섬김의 사역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차원의 노인목회의 필요성은 첫째,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은 개 교회 주의의 좁은 시야를 벗어나 복음의 시급성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 내 노인세대들에게 속히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둘째, 지역의 노인들을 섬기기 위해 함께 연합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돌봄과 섬김을 감당해야 한다.

#### 가. 복음 증거의 필요성

모든 인생에게 그 어떤 것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다.

노인들에게는 복음의 긴급성이 더 적용된다. 왜냐하면 인생의 개인적 종말이 그만큼 가깝기 때문이다. 노인들에게 복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영적으로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이 전인적인 건강한 노년의 삶이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장수’를 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준비된 삶,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삶의 목표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삶은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노인들의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한다. 노인목회는 복음 선포를 통해 그들의 영혼을 섬기는 것이다. 제한적인 육신의 삶을 넘어서 인생의 시작점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원한 삶으로의 초대 را 받아들이며 천국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초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는 한국 사회 안에서 지역 사회 차원의 노년목회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식하고 각 교회가 속한 지역의 노인들에게 시급히 복음이 증거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의 특성에 맞는 예배를 통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함으로써 영적,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필요를 인식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실버예배를 준비하게 되었다. 노인들이 예배를 통해 복음을 깨닫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삶을 내어 드림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노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가좌제일교회는 2016년 4월 16일부터 실버처치 사역자인 윤인규 목사와 연결되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 안에서 실버처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실버처치는 기존의 경로대학과는 다르게 교육이나,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믿지 않던 많은 노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있다.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노인세대야 말로 복음 사역에 황금어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노인세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고, 자녀들로부터 제제를 받지 않으며, 자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교회로 초청하기가 쉬운 세대이다. 교회학교나 젊은 세대의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매주 많은 노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듣고 있다. 이들에게 온전한 복음만을 전함으로 변화된 환한 얼굴로 돌아가는 모습을 대하며 목회자로서의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고 있다.

실버처치는 경노대학이 아닙니다. 말씀대학입니다. 실버처치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버처치는 건강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생명 프로그램입니다. 실버처치는 오락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버처치는 장수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영생프로그램입니다. 실버처치는 어르신들을 내 교회에 등록 시키려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국생명책 등록을 우선합니다. 실버처치는 초청행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적 교회를 실현하려 합니다.<sup>17)</sup>

사실 곧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분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한다는 것은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여길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오셔서 교회 안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나하는 염려가 될 때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영혼이든, 젊은 영혼이든, 나이든 영혼이든 모든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노인들을 위한 복음전도 사역은 부흥사역도 아니고, 구제사역도 아니다. 오직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지역 공동체 차원의 노인목회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필수적이 사역이다. 경노대학은 규모가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이지만, 실버처치 사역은 상가나 개척교회들도 감당 할 수 있는 사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필요를 고려할 때 각 지역교회들은 노인의 특성에 맞는 예배사역을 통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 나. 섬김(돌봄)의 필요성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 최윤식은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저 출산과 고령화가 몰고 올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할 시간은 대략 10년 정도로 보고 있다.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하나는 은퇴 후 50년을 위한 새로운 삶의 목표 설계이다. 다른 하나는 은퇴 후 50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적 준비다. 이 두 가지는 국가가 해결 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전자는 교회

17) 윤인규, "교회 안의 교회 실버처치," 가나안정복선교센터, 2014, 2.

가 준비시켜 주어야 한다. 은퇴 후 새로운 50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찾도록 교회가 도와주어야 하며 후자는 개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sup>18)</sup>

그렇다면 지역 교회 차원에서 노인목회는 늙어가는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 시대는 삶의 길이가 길어졌지만, 그만큼 삶의 질까지도 좋아진 것은 아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되었기에 지역사회 안에서 노인목회는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다. 교회는 지역 안에 다른 교회나 공공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노인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섬겨야 한다.

한국을 초 고령화 국가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우리는 초 고령화(speeding aging) 시대에 노인들에 대한 부양과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하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나, 민간단체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교회를 포함하여 다원화된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가능해 질 수 있다. 각 지역의 교회들도 노인목회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연계하여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뿐 아니라, 섬김과 돌봄도 함께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안의 성도들을 위한 노인목회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노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도록 돕기 위해서 노인 성도들에게 교회가 감당해야 할 노인목회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며 성경적인 노인목회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지역 교회 안에서 노인목회 필요성

지역 교회적 차원의 노인목회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이다. 이들은 이미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노인세대를 교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년에 포함시켜 왔다. 따라서 결혼한 이후의 사람들, 곧 성인 목회가 노인목회를 대신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구성원의 분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도시나 농촌 구별 없이 노인 성도의 비

18)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II*, 154.

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고령사회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노인목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교회 안의 노인 성도들도 노인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과 돌봄이 필요한 시기이다.

교회는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영유아목회, 어린이목회, 청소년목회, 청장년목회라는 특성화되고 전문적인 사역을 펼쳐왔다. 이제 교회안의 늘어나는 노인 성도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노년목회 사역이 필요한 시기이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본질적이며 복음적인 대안과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교회 공동체의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노인들이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망에서 떨어져 가는 노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성경은 ‘장수’를 복으로 말하고 있으나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목회적 초점도 변화되어야 한다. 노인들이 단지 경제적, 기능적, 효율적으로 교회에서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배제하거나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레위기 19:32).<sup>19)</sup>

교회는 성도들을 교육하여 노인들을 위한 목회철학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은 선교적 차원에서 그들을 섬기고 보살펴야 한다. 사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서 군림하지만,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사역이었고, 우리의 목회사역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교회는 부모와 조부모를 공경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함을 전 세대에게 가르치고 실천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노인들을 비하하는 세대 가운데 교회는 부모와 조부모세대를 공경하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전 세대에게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것이 어그러지고 거슬러져가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도전이며, 교회가 지켜가야 할 신앙 교육이며 신앙의 삶이다. 전 세대를 향해 성경적인 질서와 권위 특히 부모공경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

19) 김정준, *기독교교육논총* 제50집. 2017, 157.

하다. 또한 노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까지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젊은 세대를 격려하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노인 스스로가 장수를 감사와 복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들이 예배와 노인 소그룹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소그룹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노인 스스로가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장수를 복으로 인식함으로 세상에 도전이 되는 노인목회를 실천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몸의 각 지체로 연결된 유기적 공동체이다. 연약한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게 쓰인다. 그렇기에 연약하게 여겨졌던 노인들을 위한 노인목회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유기적 공동체로 세워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역이 될 것이다. 이렇듯 교회 안에서 노인목회를 실천해야 할 여러 가지 배경을 기반으로 본 연구자는 네 가지 노인목회의 필요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성도의 존엄한 삶을 위해 노인목회가 실천 되어져야 한다. 둘째, 노인성도가 직면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대함으로 극복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제 교회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전문성 있는 노인목회가 필요하다. 넷째, 영적 기관인 교회는 노인 성도들의 죽음의 문제를 다루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 가. 성도의 존엄한 삶을 위하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존엄하며<sup>20)</sup>,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sup>21)</sup>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기본적 인권이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노인들이 존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급속한 경제성장과 빠른 고령화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삶의 질까지도 좋아지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지역교회도 시간이 갈수록 노인 성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

20) 세계인권선언 제1조

21) 유엔 사회권 규약 제11조

고 있다. 이들 또한 양질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교회가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목회 생태계의 변화는 노인문제 접근방법에도 변화를 요구한다. 과거에는 주로 기대 수명의 연장, 건강, 생활 등 ‘생존’에 초점을 두었다면 장수혁명을 이룬 오늘날의 노인 문제는 ‘생존(survival)’을 넘어 어떻게 ‘품위(dignity)’있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로 초점이 이동되고 있다.<sup>22)</sup>

### (1)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들 스스로나 사회정책 면에서 노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전반적인 인식에는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인에 대한 소외와 차별, 노인학대 등의 사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다. 노인은 고집이 세고 완고하며,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지능적·정서적 감퇴현상으로 인해 이해와 타협이 불가하다.<sup>23)</sup>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신 노년기라 불리는 오늘날에는 적극적, 능동적,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신 노년들이 등장하였다.

인권이 존중되는 선진사회는 모든 사람이 아동기에서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전 생애의 걸쳐 기본적 인권을 항시 보장 받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노년의 삶은 모든 청년들의 미래이기도 하다. 모든 노인이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sup>24)</sup>

한국교회는 노인목회를 통하여 노인들이 존엄함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성경적으로 바꾸어 노인을 구제나 복지의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노인들이 가진 지혜와 권위가 존중 받으므로 건강한 노년의 신앙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젊은 세대들에게도 자신의 노년의 삶에 대해 긍정과 소망을 심어 주기 위해 교회는 노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명력과 활동성 있는 신앙의 삶을 펼칠 수 있는 장(field)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2) 김찬호 외, 2017 : *Fraser*, 2016; 김찬호, 2014; 장은주, 2017.

23) 한국복음주의기독교교육학회, *복음과 교육 제11집*, 2012. 168.

24) 이성호, “고령사회, 노인의 존엄성과 권리 보장,” 서울신문, 2016년 6월 30일자.



## (2) 노인의 권리 회복의 필요성

오늘날 범세계적으로 노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복지와 노인권리에 대한 정책들이 세워지고 있다. 노인의 권리는 노인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며,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말한다. 인간다운 생활의 최소한의 의미로는 생물학적인 최저생존, 인간다운 최저생존, 이상적인 인간다운 최저생존 등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상향만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인간다운 최저생존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생각건대, 인간다운 생활이 단순히 사회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권리로서 정립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와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sup>25)</sup>

교회는 노년의 삶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이 되도록 노인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교회는 노인목회를 실천함으로써 노인이 인간다운 최저생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인의 권리를 회복시켜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로부터, 과부가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씀하신다. 노인목회를 통하여 노인을 섬기는 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특별한 특수 목회가 아니라 교회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 (3) 존엄한 죽음에 대해 가르침

노년은 죽음을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노인목회가 필요한 이유는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 성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망과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10월 23일부터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 의료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존엄사를 시범 실시하였고, 2018년 2월부터는 본격 시행 되었다. 의학적 치료로 최선을 다 했지만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현 상태를 유지하는 연명치료 보다는 환자나 가족이 존엄적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것은 인간

25) 김은수, *초고령사회의 복지주거환경 및 자원의 경제학* (서울: 좋은 땅, 2015), 108.

의 삶이 단순한 수명연장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한 삶을 더 중요시 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생존’을 넘어서 인간으로서 끝까지 ‘존중받는 삶’, ‘존엄한 삶’ 나아가서 어떻게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된 것이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언제 죽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야 한다.

#### 나. 연대하는 삶을 위해

노인세대는 자율성과 독립심은 상실되고 그에 비해 의존성이 커지는 세대이다. 마치 어린아이 같은 의존성을 가지게 되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과거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이 할 수 없어지면서 노인의 상실감이 커지며, 밖에 나가면 다칠 수 있는 위험성 때에 점점 집 안에만 머무르게 된다. 자연스럽게 관계가 끊어지면서 의존성은 높아지고 삶의 열정은 식게 된다.<sup>26)</sup>

교회 안의 노인 성도들도 만찬가지이다. 성도 개인의 의존적 성향과 외로움, 두려움 또는 노인이기에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들을 홀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연대함으로 해결해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노인성도 스스로가 지속적인 신앙교육을 통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갖도록 도와야 한다.

#### (1) 통합적 목회의 필요

노인목회의 현장은 노인이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목회를 의미하며 통합적 노인목회의 방법은 노인의 신앙 교육과 신앙생활이 통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노인목회는 가정과 교회 지역사회에서 동일하게 실천되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성숙한 신앙과 삶이 통합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노인들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안에서 노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

26) 손영규, "지역교회에서의 노인사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2015, 40.

고 존중 받으며 사랑받도록 도와야 한다. 노인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는 공동체 안의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와 상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노인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속에서 그 존재만으로도 존경받아야 할 존재이다. 또한 노인들에게도 교육을 통해 자존감을 높여 주고 노년기의 삶과 신앙이 보다 더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가르치며,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변화와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 소그룹이 필요하다. 소그룹을 통해 노인들이 서로의 필요와 경험을 공유함으로 젊은 세대에게 의존하려는 의존적 성향을 보완하고 지혜를 공유 하며 활동할 수 있는 삶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교회는 노인을 단순히 보살피고 도움을 주어야 할 수혜자로만 보는 관점을 뛰어넘어 신앙교육과 삶의 실천을 통합하는 목회가 필요하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와 관계회복은 노년의 삶이 외롭지 않음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노인들의 연약함은 연대를 통해 오히려 강해질 수 있으며, 노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삶의 경험은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의존성이 강해지는 노인들이 소그룹을 통해 자체적인 연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단절되었던 관계성을 회복시켜 가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는 노인들이 신앙교육과 삶의 실천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서 관계를 통합하는 존재로서 안정감을 제공하는 성숙한 존재가 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집안의 어른인 노인 한 명이 변화된다면 가족뿐 아니라 교회와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통합적 노인목회가 필요하다.

## (2) 능동적 삶의 태도 전환

사회적 활동이 왕성했던 사람이 은퇴 후 수동적이 되기 쉽다. 우리 사회는 노년기 혹은 노후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정적이다. 하지만 신 노년 시대로 불리는 오늘날의 노년기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노년에 대한 삶의 태도가 소일거리나 하면서 남은 생을 무료하게 보내는 수동적인 태도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능동적으로 노년기를 설계하여 주도적으로 생활하려는 태도와 관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장수혁명은 노인들의 삶의 태도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시켜 노년기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능동적인 노년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목회의 패러다임을 평생교육과 자원봉사에 두어야 한다. 은퇴하였다고 교회 안에 교육에서 노인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에게 특화된 재무, 건강, 가족, 심리, 취미, 영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 세워진 노인들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활기차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며,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한다.

이는 노년기의 고독과 소외감을 떨쳐버리고 닫힌 삶을 열린 삶으로, 받는 삶으로, 그리고 수동적인 삶을 능동적인 삶으로 변화시킨다. 노년기는 생각하고 결심하기에 따라 인생의 가장 축복받는 시기이거나 혹은 가장 불행한 시기일 수 있다. 자기 연령대 혹은 젊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고 신나는 집단여가활동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 노인의 대략 30퍼센트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건강한 노인의 절반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sup>27)</sup>

노인목회는 고독에서 연대를 지향하는 목회이다. 그것은 노인들의 고독한 삶을 연대를 통하여 창조적인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목회이다.

#### 다. 전문화된 노인사역을 위해

대부분의 교회들이 노인목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과거의 인구 구조에 기초한 패러다임의 목회를 하고 있다.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치중되어,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세분화된 신앙교육과 목회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학교에 비해 노인들에 대한 사역과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사역은 노인교육의 관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대학 또는 노인학교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교육을 통한 교회의 노인 사역이 교회의 목회 사역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존재 하는 경향이 많다. 대부분의 노인대학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지역 노인들의 참여를 돕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발을 내딛게 하는데 초점이 있다. 교회

27) 김동배, "노인의 사회참여," *복지칼럼*, 2015년 5월호.

가 주도되어 운영은 하지만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노인목회의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일반적인 노인대학이 아니라 노인세대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목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회교육은 평생교육이다. 이제는 교회가 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사역을 체계적으로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1) 목회적 돌봄

노인목회의 시작은 돌봄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서로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과거에는 돌봄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 생각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 만큼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위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고령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 속에 노인을 위한 돌봄 목회는 시대적인 필요이다. 목회적 돌봄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이 전제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에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노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며, 노인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도록 돕고, 사회에 봉사하는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노인목회이다.<sup>28)</sup>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연약해진 노인들을 신앙으로 돌보아 인간적인 품위와 영적인 기쁨을 간직하며 자신의 남아 있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돌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목회자들은 노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상담자적 전문성이 필요하다. 독거노인, 노인사별, 황혼이혼, 노인자살, 노인 빈곤, 노인소외, 노인우울, 노인질병 등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목회자는 노인 개인의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경청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봄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28) 배호진, "노인목회의 필요성과 교회적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54-55.

이제 한국 교회는 돌봄 사역으로의 목회 패러다임(paradigm shift)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봄 사역(care ministry)의 필요성을 깨닫고 교육을 해야 한다.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같이 있어 줌으로써(be there)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 하는 목회사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일을 위해서 신학교에서도 목회적인 돌봄 사역을 교육함으로서 목회의 현장으로 나갈 때에 목회가 풍성해 질 것이다.<sup>29)</sup> 전문화된 노인목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목회자의 양성과 배치도 중요하다.

## (2) 평생교육의 실천

노인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다. 아마도 쉽게 변하지 않는 정형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제자훈련 같은 교육을 시작할 때에 일정 연령이 넘은 노인세대는 처음부터 훈련 대상자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교회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교회는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곧 목회이며, 목회는 곧 교육이다. 제자훈련과 같은 훈련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노인 세대에 맞는 교육을 통하여 노인의 삶에 유익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람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뇌 연구에 의하면 지능은 크게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으로 구분된다. 유동성 지능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전적 지능으로 계산능력, 기억력, 직감력 등이 이에 속한다. 결정성 지능은 학습이나 경험에 의해 획득되는 후천적 지능으로 언어능력, 이해력, 통찰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유동성 지능은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지만 결정성 지능은 80세 이후에도 향상될 수 있다고 한다. 결정성 지능에 한해서 본다면, 뇌는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결정성 지능 외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향상되는 능력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감정 조절 능력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부정적 감정의 빈도는 나이와 함께 감소하고 긍정적 감정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무렵에는 감정적으로 이전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상태에 이른다. 논어에서 예순 살을 ‘이순(耳順)’이라 하여 이 나이가 되면 생각하는 것이 원만해져 어떤 일이든 들으면 이해가 된다고 하였고 일흔 살이면 ‘종심(從心)’이라 하여 뜻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찌 보면 노화와

29) 김경수, “목회적 돌봄사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기독교연합신문, 2010.09.08.

관련된 옛말이 뇌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sup>30)</sup>

이러한 뇌에 관한 연구의 발표는 교회가 노인들을 위해 평생교육을 실천 하고자 하는데 힘을 실어준다. 노인이 되면서 젊었을 때보다 감정 조절의 능력이 향상되고 삶의 경험과 연륜에서 오는 지혜를 통해 노인들의 평생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노인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를 돌보는 돌봄 사역과 노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전문화된 노인 목회를 목회현장에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영적인 교육을 통하여 노인의 영혼과 몸과 정신을 포함한 전인적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돌보는 노인목회가 필요하다.

#### 라. 죽음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를 돕는 목회

노인목회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음의 날이 가까운 노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를 돕기 때문이다. 노인목회는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목회이다. 노인들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한계성으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노인 목회는 신앙 안에서 절망을 벗어나 희망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영적 기관으로 교회는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죽음’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 죽음의 문제는 본인의 죽음뿐 아니라 배우자의 죽음, 즉 사별에 대한 문제도 매우 중요한 노년기의 과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둔 노인세대에게 죽음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심어 주는 것은 시급하다. 노인들도 죽음에 대해 논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가 제공하는 있는 임종예식의 범위를 넘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임종과정과 사별 사후 남겨진 가족의 적응을 돕기 위한 사별목회에 대한 목회적 관심도 필요하다.

#### (1)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30) 강운정, *뇌는 늙지 않는다?- 뇌와 노화*, (서울: 브레인미디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죽음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것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편 90:12). 이렇듯 죽음은 현재의 삶에 소중함을 가르쳐준다. 성경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8절은 죽은 자들에 관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롭고 영원한 삶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한다.

바울은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한다. 곧 바울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슬퍼하지만,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을 다시 깨어나는 잠으로 여기기에 소망을 갖고, 위로를 얻는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시간, 영원한 선택, 영원한 기회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재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신중하게 내리도록 만들어주며,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조적이 되며 신앙을 갖게 된다. 또한 연약하고 자꾸만 무너지는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부담과 공포를 날려주기도 한다.<sup>31)</sup>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변함없는 진리라면 두려워하고, 거부하기 보다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확신 가운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은 죽음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 Thomas G. Long, *기독교 장례 찬송하며 동행하라*, 황빈 역 (서울: CLC, 2017), 92.



## (2)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한복음 14:1-3).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들을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신다(요한계시록 21:1-2).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죽음이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노인목회 중에 장례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본 연구자도 7년 넘게 가좌제일교회에서 담임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집례를 경험했다. 다양한 죽음의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장례를 집례 한 경우도 있고, 확신 없는 장례를 집례 한 경우도 있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하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안타까움도 있었다. 하나님의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목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준비는 꼭 필요하다. 더불어 장례를 통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가족의 죽음 앞에 자신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점검해보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인도해야 한다.

지역교회 차원의 노인목회의 필요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는 노인성도들이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노인성도들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돌봄이 필요한 성도들을 향해서는 목회 차원에서 전문적 돌봄과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전문화된 노인목회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목회의 필요성은 노인들에게 가장 큰 과제인 죽음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를 도움으로 신앙 안에서 죽음을 준비 하도록 돕는 실천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목회이다.

지금까지 고령 사회의 문제로 인한 우리나라의 현실 분석과 지역교회로서 노인목회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러한 노인목회를 실천하기 위해 성경적 노인

에 대한 이해와 노인목회의 신학적 원리를 공공 신학적 원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대한 기독교적 윤리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제 3 장

### 노인 목회를 위한 성경적, 신학적 근거

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교회도 노인 목회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교회와 사회는 노인에 대한 접근과 방향이 다르다. 사회는 복지와 구제의 관점으로 노인에게 관심을 가지지만, 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노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그렇다고 사회의 관점을 무시하고 성경만으로 노인목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세상과의 공적인 관계성이 없이 기독교적인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학의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없이 세상과의 공적인 관계성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 목회를 실천하기 전에 성경적 노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가 되며 이와 함께 편견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이 3장에서는 성경에서는 노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노인목회를 위한 신학적 근거로 공공신학에 대한 개념과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사랑과 언약 신학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서 노인목회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 제 1 절 성경적 노인에 대한 이해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이라는 호칭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이라는 호칭이 신체의 노화를 근거로 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저하의 의미를 가짐으로 공경보다는 경시하는 의미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노화현상은 심신이 쇠약해져서 죽음에 이르는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노인은 노동력을 상실한 무의미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은 인간에게 있어서 노화현상, 죽음, 일 등에 대한 사색이 표면적인 이유와 판단에 그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sup>32)</sup>.

이런 인간의 ‘늙음’에 대해 성경에서는 ‘곤고한 날’, ‘아무런 낙이 없는 날’, ‘어두운 날’,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날’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따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개역개정)라고 기록되어 있다. 전도서에 표현된 ‘곤고한 날’은 인생의 노년을 묘사하고 있다.<sup>33)</sup>

노인목회를 실천하기에 앞서 목회의 대상인 노인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성경은 태어나고 성장하며 늙어서 죽게 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있으며, 그 인간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의 삶에 대해 교훈과 위로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노인이라는 단어가 대체로 부정적으로 사용되지만 생애 마지막 단계인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소명과 노인 상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구약에 나타난 노인의 소명과 노인 상(想)

구약 성경 시편에서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와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시 92:14-15, 개역개정). 시편 말씀에 의하면 노년의 삶이 결코 슬픔과 상실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노년은 노년으로서의 소명과 삶의 결실이 있다. 그를 통해 여호와와 정직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노년의 삶의 소명이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노인은 생물학적으로는 노쇠하여 가지만, 성경적으로는 여전히 결실하며 청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보고 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노인의 소명과 그 소명을 감당한 인물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가. 공경의 대상으로서의 노인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공경 받지 못

32) 김희신, “성경적 노인관에 대한 이해,” 기독교한국신문, 2016.11.23.

33) 최경은, “성서에 나타난 노인 토포스,” *유럽사회문화* 17호. 2010, 92.

하고 있다. 구약성경은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孝)를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너는 쎌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9:32, 개역개정). ‘쎌 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하신 것은 노인들을 공경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공경이라는 단어는 멸시하지 말라는 뜻이다. 노인들은 젊은이들로부터 공경을 받아야 할 대상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또한 십계명에서 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애굽기 20:12).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히브리어 ‘카베드’(כבד, kabede)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말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다. 레위기의 19장 3절의 말씀에서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강조하는 구약성서에서 오직 단 하나의 예외로 부모를 경외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오경에서 부모에 대한 생각이 공경의 대상을 넘어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다.<sup>34)</sup> 이렇듯이 구약사회에서 노인은 하나님처럼 공경을 받는 사회적 존재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공동체가 중요했던 구약사회에서 노인은 권위와 지위를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공경을 받는 존재였다.

또한 공경한다는 것은 노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살피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약에서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에 맏아들에게는 두 배의 유산을 받을 권한이 주었다(신명기 21: 15-17). 이것은 맏아들에게 상속의 권한과 함께 부모에 대한 생계의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자녀에게 부모의 노년을 책임지게 함으로 공경하게 하였다. 부모를 포함하여 나이든 노인이 신체적 약함이나 무기력한 사회생활로 인해 경홀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모든 노인들은 반드시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나 나이든 노인들을 공경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오경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부모에게 짓는 죄를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신명기 27장에는 모두 12가지 저주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저주받을 제

34) 오택현, “구약성서에 나타난 노인, 성경으로 보는 노인문제 특집,” *성서따당*, 2006년 11월 호, 10.

1호 죄목인 우상숭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죄목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죄”라 규정하고 있다(신명기 27:16). 이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죄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버금가게 저주받을 죄로 평가함으로 웃어른을 반드시 공경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sup>35)</sup> 이 또한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할 부모(노인)에 대한 구약 사회의 노인상이다.

성경에서 백발(흰머리)로 대표되는 노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킨 데 대한 은총으로 이해된다(사무엘상 2:32 참조). 그러므로 노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증언하며 살아야 할 소명이 있는 시기이다. 구약에서는 나이 많아 늙은 노년을 히브리어로 ‘세바토바’(סֵבַטוֹבָה, sebatoba)라고 했는데 직역하면 ‘좋은 흰머리’라는 뜻이며, 아브라함(창세기 15:15, 25:8), 기드온(사사기 8:32), 다윗(역대상 29:28)의 노년에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머리가 완전히 희어질 때까지 오래 살고, 죽을 때까지 형통하며 자연사하여 가족묘에 장사되는 것을 말한다.<sup>36)</sup>

구약성경은 십계명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규례를 지켰지만 사회제도 가운데 ‘시형제 결혼’<sup>37)</sup> 제도가 있어 자식이 없이 혼자 된 과부의 노년의 삶을 시형제가 돌보아 주도록 하였다. 롯기는 시형제 결혼제도를 배경으로 구약시대의 양로문제에 관한 흥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롯기 4:14-15).<sup>38)</sup>

롯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한다. 결국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의 집안에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 롯을 사랑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나오미를 공경했고 불쌍한 여인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롯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

35) 오택현, “구약성서에 나타난 노인,” 11.

36) 권영규, “노인에 대한 성서적 이해,” 기독교자료모음, 기독교정보넷.

37)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중의 하나가 남자 후손을 두지 못하고 죽을 경우, 생존한 형제들 중 장자가 과부된 형수를 아내로 맞아, 형수의 노년을 책임져줄 아들을 낳게 하는 결혼이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은 죽은 자의 아들이 되며, 본인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도성의 장로들 앞에서 포기선언을 함으로써 모면할 수 있었다. 이때 그 과부는 시동생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뺨을 쳐서 그가 자기 형제의 집을 다시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 모욕을 주었다.

3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한국교회와 노인문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53.

고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이름을 올린 복된 여인이 되었다. 그 안에 노인 공경의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sup>39)</sup>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인들이 노년의 삶을 비참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사회적 제도를 세워주셨다.

#### 나. 지혜자로서의 노인

성경에서 노년은 지혜자로 표현되고 있다. 지혜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חכמה, hokeuma)로 실용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탁월한 숙련성, 기교적인 기술을 가리킨다. 그래서 성막을 제조할 때 임명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롭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출애굽기 28:3, 36:2,8). 이것은 장인이나 선원, 상담자 등의 기능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었고, 목수일이나 베 짜는 일(출애굽기 35:35)등 전문 영역에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에게 적용되었다. 또한 신약에서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σοφία, sophia)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완전한 이해, 즉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로마서 11:33-36) 또한 지혜는 예수그리스도 자신, 즉 성육신 하신 로고스를 가리키기도 한다.<sup>40)</sup>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아버지 솔로몬이 멩에를 무겁게 한 것처럼 하지 말고 고역을 가볍게 하여주기를 구한다. 그렇게 한다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제안을 한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열왕기상 12:6-8)

르호보암 왕은 3일의 시간을 두고 노인들과 의논하였지만 노인들의 지혜를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게 된다. 그 결과는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된다. 삶의 연륜 속에서 나오는 노인의 지혜는 긴 시간을 살

39) 손영규, “지역교회에서의 노인사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논문, 2015, 16.

40) 하용조 편찬, *비전성경사전*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1).

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웃어른의 지혜로 어려운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한 모세의 예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지혜로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을 얻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온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출애굽기 18장 7-8절).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 이었지만 웃어른인 이드로에 대해 최대한 존경과 공경의 태도로 맞이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장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와서 절하고 입을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안으로 모셔드렸을 뿐 아니라 그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과 그들의 상황과 고난까지도 상세히 나누었다. 이것은 모세가 장인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음날 모세 혼자서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을 보고 이드로가 지혜의 조언을 하게 된다(출애굽기 18:13-26). 이드로는 모세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기력이 쇠할 것을 판단하고 십 부장과 오십부장과 백부장을 세워 일을 나누어 담당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모세는 이드로의 지혜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 결과 백성들은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구약 성경에서 노인은 경험에 의한 숙련된 기술의 소유자로, 또한 상담자로서 존중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다. 권위자로서의 노인

생물학적인 노년의 삶은 전도서의 비유와 같이 허무한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때 노년의 백발은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이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식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위되는 노년의 삶은 가치 있고 존귀하며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년의 삶에는 중요한 사명과 할 일들이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sup>41)</sup>

41) 박동숙, “고령화 사회의 재가복지를 통한 노인목회 방안 연구,” 충신대학교 신학박사 학위논문, 2011, 77.



권위자, 결정권자로서의 모델을 갈렘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여호수아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다. 갈렘이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정복할 때 그의 나이는 85세인 노인의 나이였다. 하지만 그는 젊을 때의 역동적인 모습을 조금도 잃지 않고 아낙자손들이 살고 있는 견고한 성읍 헤브론을 자기에게 유업으로 주기를 여호수아에게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여호수아 14:11-12).<sup>42)</sup>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다. 이 때 모세의 뒤를 이은 젊은 차세대 리더 여호수아 앞에서 갈렘은 담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앞장서 도전적 결정을 내리는 갈렘의 모습은 권위자로서, 결정권자로서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수기에서는 생의 연령이 높고 경험이 많은 노인 중에서 지도자들을 세워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에 대해 불평 하였을 때, 모세는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내가 배고, 내가 낳은 자들도 아닌데 책임이 너무 중하여 혼자서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장로와 지도자를 노인들 중에서 세워주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 한 자 칠십 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민수기 11:16) 이렇듯 중요한 결정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인(장로)들을 세워 그들의 권위를 세워 주시고 결정을 따르도록 하셨다. 장로는 연령이 높고 생의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를 일컫는 말로서 성경 속에서 장로는 가족과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충고와 권면을 통해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해주는 지도력을 발휘하였다.<sup>43)</sup>

또한 노인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권위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위의 소유자였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열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축복한 대

42) 오택현, “구약성서에 나타난 노인,” 13.

43) Hans Valterbol, *구약성서의 인간학*, 문희석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76), 220.

로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곧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대행자이다. 특별히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기도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부모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의 주요 인물들은 죽음의 때가 가까웠을 때에 노래나 유언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축복이나 당부의 말들을 남겼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인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해 주는 귀중한 사명과 특권이 주어져 있다. 노년에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노년은 분명히 인생의 복된 시간이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sup>44)</sup>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이다. 교회부터 노인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회복해야 한다.

#### 라. 약자로서의 노인

노인은 존경과 지혜와 권위가 있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연약한 세대이다. 기력이 쇠하고, 기억력이 상실되며, 눈이 흐려지고, 활동이 부자유스럽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편 90:10)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호령했던 다윗왕도 나이 들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연약해 졌다고 말씀한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열왕기상 1:1).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연약해진다. 홀로 설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온다. 건강이 점점 약화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심신의 쇠퇴를 절실히 경험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노년의 삶이 무의미한 삶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젊고 힘이 있을 때에만 인간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인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과 사의 갈등 가운데서도 분명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소명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연약해진 인간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연스러운 육체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사는 하루하루의 삶의 경외함을 가져야 할 것이다.

44) 김중은,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5), 55.

왜냐하면 이들의 생명 뒤에도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 거둠을 받을 때까지가 노년의 삶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는 한 이것을 기꺼이 긍정하며 하루하루가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는 노년의 삶이라면 이는 그 어떤 외적 사명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내적 사명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은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한다. 교회는 노인의 지혜와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돌보아 주어야 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

## 2. 신약에 나타난 노인

구약이나 신약이나 시대가 다르다고 해서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적 가르침이 다른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부모를 비방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 하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셨다. 바울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부모공경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다(에베소서 6:2,3).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늙아지는 걸 사람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강조하면서, 생물학적으로는 노인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한다. 또한 노인은 다음 세대에게 주의 진리를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가. 공경의 대상으로서의 노인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에서도 노인을 공경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마태복음 15:4-6).

예수님께서서는 공경과 비방을 서로 대비가 되는 단어로 사용하여서 부모에 대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죽음의 형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특히 자녀가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고르반<sup>45)</sup>) 부모 공경을 거부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법을 악용

하는 자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처럼 부모공경에 대하여 가르치셨고, 예수님 자신도 부모공경의 본을 보이셨다.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심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바울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베소서 6:1-3)이라고 언급한다.

하나님께 드린 것조차도 핑계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대에 교회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을 실천하며 부모 세대인 노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노년을 삶을 섬기는 본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며,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다.

나. 겉 사람은 늙아져도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노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흠으로 지어진 육신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을 가지고 있다. 흠으로 지어진 육신은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성장이 멈추고 점점 쇠퇴하여 노화되어 간다. 그리고 죽어서 다시 흠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영은 영원히 쇠퇴하거나 노화되거나 죽지 않는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늙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린도후서 4:16).라고 말씀한다. 노년의 인생은 생물학적으로는 나이가 들고 노쇠하여 가지만 그 영은 오히려 새로워질 수 있는 세대이다.

노인의 삶은 육체적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기 힘들고, 지나온 삶에 대해 마무리와 정리를 하여야 하는 때이다. 하지만 신약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고린도후서 5:1-2).

---

45)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라는 뜻의 아랍어이다. 어떤 유대인이 '이것은 고르반이다.'라고 선언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다. 원래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사용해야 할 재물이라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성전에 바치게 된다. 부모를 봉양하기 싫어서 일단 고르반이라고 해 놓고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께도 바치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

노년의 삶이 단순한 육체적 소멸의 기간이 아니라 창조 안에 있는 과정으로서 노화이며 영적 성숙을 향한 필연적 과정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sup>46)</sup> 그리고 노년은 영적 성숙의 시기이기에 육체적으로는 노쇠하지만 신앙의 깊은 경지, 즉 체험적인 신앙과 변함없는 인내로 영적으로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sup>47)</sup>

결국 노년은 쇠퇴하여 없어지는 세대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세대이다. 그러므로 겉 사람은 늙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노년의 삶은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될 것이다.

#### 다. 구제의 대상으로서의 노인

초대교회에서는 늙은 과부들에 대하여 구제가 있었다.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사도행전 6:1). 초대교회 성도들이 급성장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사도들만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웠기에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들은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면 먹을 것이 없고 굶어야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이 구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소외감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었다. 노년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분명히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쇠약과 은퇴의 단계임은 분명하다.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년의 삶은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않된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구제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구제를 더 잘 하기 위해서 일곱 명의 집사를 뽑아서 구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였다. 곧 생활력이 없는 노인을 구제하는 것은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본질적인 사역인 것이다.

누가복음은 정확히 구제,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누가복음 12:33).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긍휼

46) 제자원, *그랜드종합주석 제17권* (서울: 성서아카데미, 2004), 731.

47) 정영식, “교회에 있어서 노인은 누구인가?,” *풀빛목회*, 1982년 12월호 39.

의 마음과 구제의 실천이 하나처럼 담겨져 있고, 긍휼과 구제는 영생의 질문과 늘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존재목적이기도 하다.

효에 대한 사고와 윗사람에 대한 공경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간직해 왔던 미덕이었듯이 오경에서도 노인에 대한 공경이 그들 사회를 지탱해주는 힘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노인에 대한 공경을 잃어간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sup>48)</sup>

공경의 대상으로서, 지혜자로서, 중요한 일에 있어 권위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로서의 노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쇠퇴해져 가는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인간의 생애 주기를 받아들이면서 연약해진 노인들을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로 섬기는 일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며 언젠가 젊은 세대들도 노년의 세대를 맞이하게 될 때 존중받는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노인문제에 있어 불편한 진실과 대면하게 된다. 점점 노인에 대한 공경이 사라지고 멸시하는 풍조가 나타나고 있다. 성경적 목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성도들에게 가지게 하며, 실제적인 노인공경의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회 가운데 교회가 바른 본을 보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

## 제 2 절 노인목회의 신학적 원리

노인목회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공신학과 기독교의 핵심가치인 사랑과 언약을 중심으로 신학적 원리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수적인 저성장과 고령화로 인해 정체되어 가고 있다. 또한 대형교회를 비롯해서 목회자의 윤리성 문제나 성도들과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면서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공적기능과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사회로부터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건강한 교회들까지 전도의 문이 막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IT시대를 살고 있는 현 시대는 SNS를 통해 한국교회를 향한 악의적이고 지나치게 주관적인 비난의 뉴스나 댓글들이 무분별하게 떠돌고 있다. 이러한 현

48) 오택현, "구약성서에 나타난 노인," 12.

실을 감안하더라도, 오늘 한국교회는 내외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듯이 ‘공공성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는 그 위기에 대한 반성과 함께 갱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교회가 사회와 분리되고 개교회 중심의 사적인 공동체로 변질되면서 “공교회” (public church)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 것에 대한 회복과 갱신을 위한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공공신학을 이해하고 연구해 보고자 한다.

현대 기독교 신학을 대표하는 공공신학을 성서적 기원과 해방신학 그리고 다양한 공공신학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랑과 언약대한 기독교 윤리를 중심으로 지역교회 안에서의 노인 목회 실천을 위한 신학적인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공공 신학적 원리

### 가. 공공신학의 성경적 기원

최근 한국교회가 공적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신학의 여러 주제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견해와 관점들이 논의되어지고 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므로 기독교는 공적신앙과 분리 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sup>49)</sup>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나 개인의 하나님으로 축소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교회의 울타리 안에 가두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공공신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라디아서 3:27,28).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공공신학의 의미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공공신학은 어느 순간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서와 기독교신학의 역사 속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

49) CBS “크리스천 now85”, 교회건물의 벽을 넘어서-공적신앙을 위하여, 조성돈 패널 내용 발췌

공동체의 공적인 삶을 이끌어 나가는 기준인 십계명에서 그 근원을 찾아 볼 수 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1-4계명)과 이웃에 대한 윤리(5-10계명)가 분리되지 않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나타난다. 이웃,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이방인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실천되고 검증되는 장소로 간주 되었다.<sup>50)</sup>

또한 신약에 와서도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윤리에서 공공신학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서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제시한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현해 나가는 공적인 일과 직결되어 있다.<sup>51)</sup>

#### 나. 한국교회와 복음주의 안에서의 공공신학

2014년 7월 14일에 CBS “크리스찬 Now”라는 프로에서 방영된 “교회 건물의 벽을 넘어서-공적신앙을 위하여”라는 주제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이화여대 백소영 교수는 한국의 공공신학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공공신학은 7~8년 전부터 한국 교계에 소개되어 왔으나, 한국 신앙의 역사 속에서 볼 때 새로운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3.1운동을 들 수 있다. 3.1운동은 인간의 자유, 평등, 평화를 실천한 기독교 운동이었다. 한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던 이 운동은 기독교가 당시에는 소수 종교였지만 시민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운동을 주도해 참여 했던 공공신앙의 표현이었다. 70~80년대에는 근대화라는 거대한 담론 속에서 도시 빈민자나 노동자들의 인권회복위해 연대했던 진보적 에큐메니칼 교회들이 있었으며 1987년 이후에는 복음주의계열의 교회들도 적극적으로 사회참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52)</sup>

오늘날 한국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신앙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적 신학과 에큐메니컬한 진보주의적 신학이 선을 긋고 서로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복음주의 신학은 개인의 구원과 신앙을 중시하였고, 진보주의

50) 장신근, “공공신학의 이론적 지형과 한국적 적용,” 제6회 연구위원회 세미나 한국교회의 공적책임, 3.

51) Ibid.

52) CBS “크리스찬 now”, 교회건물의 벽을 넘어서-공적신앙을 위하여, 2014.7.14. 방영.



적 신학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교리를 해석함으로써 교회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과 부조리로부터 이들을 해방시키고자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서로 공유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와 소통하는 앎의 복음은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복음주의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다. 선교에 있어서도 이른바 'Missio Dei'(하나님의 선교)라는 선교의 개념이 공유되고 있다. 이것은 주체는 하나님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이러한 선교에 대한 개념이 수렴되어져서 선교적 교회 또는 'Missional Church'라는 표현으로 변화와 갱신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한국교회도 복음주의나 진보주의에 관계없이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과 내용들이 수렴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 중심으로 보수, 진보의 나뉘는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으며 신앙적인 진정성과 사회적 참여에 관심을 가진 기독 시민운동이 활성화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흐름 속에 지역교회에 목회자와 목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이다. 지역교회가 과거에 것에 여전히 묶여 있으면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 소멸된다.<sup>53)</sup> 이제 한국교회의 복음주의 안에서도 교회의 공공성을 공감하고 이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사회 참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공신학에서 교회의 사명은 투쟁과 갈등이 아닌 모두 인간에게 차별 없는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실천적 신학으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다.

#### 다. 공공신학의 다양한 견해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의 제14차 정기 논문발표회에서 최경환은 공공신학이란 공적인 삶속에서 교회의 위치와 사회적 형식, 그리고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공공신학은 "근대적인 사회의 출현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탄생, 그리고 이들이 광장에 모여 토론과 비판을 통해 정치적 주체로 재탄생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학자들 간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sup>54)</sup> 그러나 교회의 '공공성'보다는 교회의 '거룩성'을 강조하는 신학자들은 공공신학을 목회 현장

53) CBS "크리스천 now", 교회건물의 벽을 넘어서-공적신앙을 위하여, 2014.7.14. 방영.

54) 최경환, "교회 갱신을 위한 공공신학 활용 지침," 한국복음주의 윤리학회 제14차 정기논문 발표회집. 2014.

에 접목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들은 공공신학을 교회와 사회가 융합한 사회운동으로 평가하며,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성’을 지켜가는 것보다 사회의 ‘공공성’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공공신학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갖는다. 그들은 교회는 세상과의 융합을 거부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공동체가 성경에 합당한 공동체는 아닐 수 있고, 성경에 합당한 공동체가 세상에 합당한 공동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세상 속에서 교회의 정확한 위치와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를 한 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성’과 신학의 전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소통하며, 교회가 존재로서의 공공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노영상은 다음과 같은 신학자들을 공공신학자로 분류한다. 맥스 스택하우스(Max Stackhous), 위르겐 몰트만(J. Moltmann), 존 웨슬리(Jhon Wesley), 월터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usch),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등이다. 스택하우스는 다음과 같은 신학자들을 자신의 공공신학 계보에 속하는 인물로 제시한다. 곧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에른스트 트뢰츨(Ernst Troeltsch), 폴 틸리히(Paul Tillich),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rds) 등이다. 그리고 그는 독일의 공공신학자로 볼프강 후버(Wolfgang Huber), 칼 슈미트(Carl Schmidt), 요하네스 메츠(Johannes Metz), 위르겐 몰트만(J. Moltmann) 등을 주목한다.<sup>55)</sup>

노영상은 그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공신학은 교회만을 위한 신학이 아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신앙을 설명하여 그들을 설득하고 사회적 변혁을 위해 영향력을 갖는 신학이다. 이를 위해 공공신학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 공유하는 보편적 실천적 도덕적 사유(Universal practical moral reasoning)와 자연법(Natural law) 및 공유된 도덕법(Moral law)에 호소하려 한다. 이러한 각도에서 공공신학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공유하는 공동 도덕(Common morality)을 강조한다.<sup>56)</sup>

55) 김병권, “한국교회 갱신의 관점에서 본 공공신학,” 3.

56) Ibid.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J. Moltmann)에 따르면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과 세계 모두를 다루기 때문에 '공적인 신학' (Theologia publica)이며 그렇기에 '사회의 공적인 일 (Res publica)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sup>57)</sup>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신학이 '하나님-나라의-신학'이며 하나님 나라의 지평 속에서 '공적인' 신학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세상과의 공적인 관계성이 없이 기독교적인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학의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없이 세상과의 공적인 관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sup>58)</sup> 신학은 개인의 영혼구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적 교리에 일치하여 공동의 삶의 안녕과 공공복리의 추구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학은 사회의 공적인 과제와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속에서 공익과 '공공복리'에 복무하기 위해 공동의 삶에서 실천과 적용이 가능한 이론적 체계와 실천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려고 힘써야 한다.<sup>59)</sup>

김병권은 한국교회 갱신의 관점에서 본 공공신학 논의에서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한 공공신학의 활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리 했다.

첫째, 신학의 공공성은 공공신학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각 교단의 신학자들은 자기 교단의 신학 속에 내재된 공공성의 내용들을 조사하고 그 내용들이 한국 교계의 실정에서 갖는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신이 속한 교단의 신학의 공공성이 교단 교회에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내면화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위의 과제를 수행한 다음 공공신학에 대해 논의한다면 적지 않는 유익을 얻을 것이다. 다섯째, 스택 하우스의 에토스에 관심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교회의 에토스를 변화 시키는 좋은 방법은 교인들 사이에 편하게 주고받는 작은 이야기의 성격을 변화 시키는 것이다.<sup>60)</sup>

최경환은 2014년 한국복음주의 윤리학회 14차 포럼에서 공공신학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은 첫째, 공공신학은 모든 사람이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지할 수 있는 보편성

57) Jurgen Moltmann,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박미숙 역 (서울: 동연, 2009), 9.

58) Ibid., 7.

59) Ibid., 10.

60) 김병권, "한국교회 갱신의 관점에서 본 공공신학," 17-18.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공공신학은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와 개인주의에 반대하고 성도들의 삶이 교회 내적 윤리로 환원되는 것을 반대한다. 셋째, 공공신학은 사회 참여의 당위성을 넘어 그 방법의 정당성을 고민한다고 정리했다.

공공신학이 한국에 소개 된 이후, 다양한 공공신학의 견해들에 대한 모색 및 비판도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신학적 흐름과 논의를 기반으로 '공공성의 시대에 지역교회로서 노인목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며, 신앙인은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하고 목회 현장에서 접목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적인 삶속에서 교회의 위치와 사회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공적인 기능에 대해 분명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공신학의 실천은 단순히 사회적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 방식'도 포함되어져야한다는 김병권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 공공신학을 실천하는 방식에는 교회가 사회에 존재하는 것도 포함 되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에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도 공공신학의 중요한 실천이다.

## 2. 소명으로서 공공신학

공공성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며, 신앙인은 어떤 소명을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공적인 소명의 구체적인 근거는 성경 창세기 1장 27-28절 말씀에 근거 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로 명확히 구분 하였고, 이것은 인간에 대한 계획과 부르심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청지기적 다스림의 임무를 주셨다. 그 부르심, 곧 소명의 내용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환경에 자신을 맞추고 적응하며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문화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가지

고 인간의 선과 복리를 위해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되었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인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임을 말해 준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 즉 개인의 삶 속에서 각자가 부름 받은 소명을 가졌다는 근거이다. 구약 뿐 아니라 신약성경의 형상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적 특징을 말해 주고 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로마서 8:29-30).

형상이 관계적 의미로 이해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자신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에 기여적인 참여를 통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갈 것을 요구 받는다.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서로 간의 교제와 공동체 속으로 부르신다. 소명 즉 부르심은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하고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로 타당하게 적용된다.<sup>61)</sup>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로새서 3:22-24)고 말씀하고 있다. 일체의 일은 신자로서 우리가 맡은 거룩한 청지기 직분이며 그리스도께 대한 섬김처럼 그것을 수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다는 개념은 신자인 우리의 모든 일과 활동이 ‘신령한 영적 봉사’라는 뜻이다.<sup>62)</sup>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공적인 소명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은 신령한 영적인 봉사를 감당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종이라는 신분의식과 복음의 일꾼이라는 소명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소명이 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직업을 가지며 무슨 일을 하든지

61) 이상훈, “공공신학적 주제로서의 소명과 코이노니아 관점서 본 고령화 사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8집, 219.

62) 김재영, *직업과 소명* (서울: IVP, 1989), 14.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공적 증인으로서 정체성을 인식해야 하며 이를 확보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동욱은 “이른바 ‘나’에 집중된 회중들의 과심을 ‘우리’라는 공동체적 사고로 전환하는 것에 필요성을 느낀 신학계가 공공신학에 주목하게 되었다”며 “공공신학은 사적 신앙이나 사적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개인의 실존을 추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sup>63)</sup>고 강조 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노동에 대한 보수가 지불되는 직업의 발달과 함께 소명의 개념이 축소되는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소명에 따른 인간의 가치는 생산성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섬김에서 더욱 찾아지고 인간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코이노니아에서 발견된다. 바른 소명 이해에 따라 모든 일은 (직업과 활동 포함)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고 신학적 의미가 부여되며 또한 모든 인류에게 문화 명령이 적용되기에 소명과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sup>64)</sup>

이처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은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과 사회 참여와 활동에 대한 의무와 권리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소명의식을 잃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소명은 생애 수단으로 활동했던 경제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길어진 노후를 보람되고 활력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은퇴 후의 소명의식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은퇴 전, 전반기 생애의 경험과 지식을 이용한 은퇴 후 사회봉사나 활동은 그 의미가 크다. 노인목회는 노인들이 생애 끝 날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제이 씨 페니(JC Penny)의 CEO를 지낸 마이크 울먼이 은퇴 후 몇 년 후에 스타벅스의 창업주 하워드 숄츠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울먼은 돈도, 인정도 필요치 않았지만 숄츠의 제의를 받아 들였다. 2만 5천명에 이르는 판매 직원들에게 저마다의 업무를 소중하게 여기며 고객들을 섬기는 것이 명예로운 일임을 깨닫도록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다. 간단히 말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고 믿었던 것이다.<sup>65)</sup>

63) 양동욱, ‘공적설교’의 방향제시, 한국설교학회 ‘제19차 봄학술대회, 2014.

64) 이상훈, “공공신학적 주제로서의 소명과 코이노니아 관점서 본 고령화 사회,” 218.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 같이 가르치고 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고린도전서 7:17)

또한 인간은 생애 주기에 따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청년은 청년으로서, 장년은 장년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노인은 노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존재한다. 특별히 노인은 다음 세대에게 주의 진리를 성경적 권위와 지혜로서 가르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 3. 코이노니아로서 공공신학

공공신학의 과제를 한 사람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다. 교회와 공동체를 강조하는 대교리문답의 지혜를 따라서 공공신학 역시 모임과 조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대교리문답은 62-64문답에서 교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지상의 “유형교회는 세상의 모든 시대들과 세계 모든 곳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대요리문답 62) 유형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받으며, 모든 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보호를 받고 보전된다. 이처럼 교회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며(대요리문답 52),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기 때문이며(대요리문답 54), 은혜와 영광중에 그분과 더불어 연합과 교제를 하기 때문이다(대요리문답 65).

노인목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섬기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즉 코이노니아(성도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목회가 오직 노인세대만을 위한 목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도 전체의 참여와 공생이 합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유기적인 몸이기 때문이다. 교회 공동체의 전 세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각자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 유기적 생명체로서 교회는 계속해서 태어나고

---

65) Tim Keller, *일과 영성*, 최중윤 역 (서울: 두란노, 2013), 79.

자라나고 성장, 성숙하며 쇠퇴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노인세대에 대한 교회적 전도와 신앙교육, 섬김과 돌봄 사역은 다음세대가 노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 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역교회로서 노인목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교회의 공적인 기능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안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공적 공동체로서의 기능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이루어 질 때 지속 가능한 노인목회가 실천될 것이다.

노인목회에 있어서 코이노니아로서 공공신학이 중요한 것은 고령사회는 인간관계와 공동체 개념이 약해지고 개인적이며, 이기주의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을 고려할 때 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한 건전한 신학 사상이 뒷받침 된 코이노니아(성도의 교제와 연합)를 가르치고 실천해야 한다.

코이노니아는 두 가지 차원 즉, 수직적이 교제(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인간과 인간과의 교제)로 이해 할 수 있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이루어 졌을 때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를 인식하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부르심 즉 소명의식을 갖게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선행이 되었을 때 인간은 다른 인간과의 교제와 다른 피조물들과의 올바른 교제를 맺어 갈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할 때 인간은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 되었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교제 가운데 더불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신약성경 골로새서에 의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골로새서 3:12-14)라고 말씀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 되었다. 그러므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여기며 서로 용납하고 자비와 겸손으로 섬겨야 한다.

폴 레만(Paul L. Lehman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코이노니아는 우리의 주의를 인간의 관계맺음으로 향하게 한다고



말하였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가 인간의 교제를 일으키고 인간 사회의 지속에 요구되는 유대를 제공한다. 그리고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 가운데 만드시는 상호 연관성의 구조를 보여준다.<sup>66)</sup>

또한 코이노니아는 자발적이고 활동성이 발현되는 교제로 각자의 재능과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교제이다.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내재하는 본질적 의도인 은사의 다양성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차이’와 ‘다름’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임을 드러낸다. 구성원 간의 차이와 다름은 서로를 이해하고 보완하며 돕는 사랑의 실천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

노인목회의 신학적 원리로서 코이노니아는 삼위 하나님의 삶과 존재방식(삼위 하나님의 다양성과 동시에 일체되신 통일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의 페리코레스시스(perichoresis, 상호내주, 상호관통, 상호참여 등으로 번역)적 관계 속에서 각 위는 서로 ‘독립적’이거나 ‘개별적’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고 맡기는 상호 의존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sup>67)</sup>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코이노니아인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섬김의 기회를 향해 무한한 자유를 가지게 됨”을 가리키고 동료 인간과의 성숙한 연대 속에서 ‘낮선 자’와 ‘가난한 자’와 ‘무시 받는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실천을 의미한다.<sup>68)</sup>

또한 “공공신학 교육을 위한 교본으로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이라는 논문에서 우병훈은 공공신학에 있어 공동체로서 교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모상(模像)으로서 삼위의 다양성과 한분 하나님의 일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관이 된다(대요리문답 9-11, 60, 167:세례를 통한 연합, 168:성찬을 통한 연합 참조). 현대 한국 사회는 한편으로는 매우 분화되어 있고 다원화 되어 있으며 상대주의적인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며 극단적인 편 가르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도움으로 공공신학을 실천하고자 하는 신자들은 다양성 속에서 일치성을 추구하고, 일치성 속에서

66) Lehmann, *Ethics in a Christian Context*, 56.

67) 정성국, *삶 속에 적용하는 life 삼위일체 신학*, (서울: 홍성사, 2007), 63.

68) Daniel L. Migliore,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신옥수, 백충현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405.

다양성을 용인함으로써 이 세상에 아주 독특한 대안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 그들은 각자가 속한 영역에서 활동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참조하고 도와주는 유연성과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다.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공공신학의 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지혜를 대 교리문답에서 얻게 된다.<sup>69)</sup>

존 스토티(John Stott)는 “오늘날 교회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교회의 사회성과 역사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가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세속화의 길을 걸어왔기에, 이는 시대의 요청이다”<sup>70)</sup>라고 말했다. 이러한 세속화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수직적 코이노니아) 소원해 지고 불화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존 스토티의 지적처럼 세속화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교회의 공적 기능을 회복하고 공적인 이슈들에 대해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성경적인 소명인식과 코이노니아의 실천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 졌을 때 그 자신이 굴절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인간과 인간 사기이의 수평적 코이노니아가 실천될 때 비로소 전도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 신학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실천을 지향함으로 사회적이고 공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서 찾을 수 있고 인간 삶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관계의 코이노니아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노인목회의 비전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노인빈곤, 노인소외, 노인자살과 치매)을 기독교 신학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독특성과 신학 전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기독교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균형 잡힌 노인목회의 비전을 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노인목회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공신학의 원리, 소명으로서의 공공신학, 코이노니아로서의 공공신학을 살펴보았다. 신학적 흐름과 논의를 기반으로 공공성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지역교회로서 노인목회를 실천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둥으로 ‘사랑’과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한다.

69) 우병훈, “공공신학 교육을 위한 교본으로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고려신학교, 조직신학, 2016, 90-91.

70) Stott, John, *성경이란 무엇인가?*, 박지우 역, (서울: IVP, 2015), 128.

### 제 3 절 사랑과 언약에 대한 기독교 윤리

기독교 윤리학을 일반철학 또는 윤리학에서 부를 때 신명론(Divine Command Ethics)이라 부른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학은 하나님의 명령을 삶의 규범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말이다. 개혁주의 윤리학은 어느 신학적인 전통보다 하나님의 명령의 규범성을 강조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며 그것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 인간들이 윤리적 성숙을 도모하는 삶이라는 신학적인 전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을 따르며 지키는 자에게 성숙한 삶으로 인도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그 명령을 내신 하나님이 완전하고 흠이 없으시며 그분의 도덕적인 판단이 의롭다는 신학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신학을 설교 신학적 측면에 접목시킨 하우어워스는 교회가 사회윤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윤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구체적으로 내러티브, 인격, 덕 그리고 공동체 (교회)를 주요 개념으로 해 교회 자체가 사회윤리임을 주장하며 공동체 우선의 독특한 신학을 펼쳤다. 또한 그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바로 세상이 변혁되는 첫 걸음이며 교회 윤리가 사회 윤리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원론을 극복하고 일원론적 관점에서 세상을 조명하는 근거를 제시한다고 강조했다.<sup>71)</sup> 기독교는 사랑을 떠나서는 존재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예수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성령님의 돌봄의 사랑이 없이는 기독교를 설명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지역을 섬겨왔다.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소통해온 일은 과거 선교사들로부터 이어온 한국 교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 1. 사랑에 대한 기독교 윤리

미로슬라브 볼프 (Miroslav Volf)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실천으로 신앙의 기능장애를 방지하고 모두의 번성과 하나님의 본질적 관련성을 실증하는 것"<sup>72)</sup>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복음 전파도 타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에 기인해야 하며 이웃이 직면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71) "한국 교회 설교강단의 공적 기능: 스탠리 하우어워스, 맥스 스택하우스, 월터 브루그만의 공공신학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2014

72) Miroslav Volf, *광장에 선 기독교*, 김명운 역 (서울:IVP, 2014), 111.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 주기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 하시며 부여하신 삶의 방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각 개인이 지음 받은 목적(소명) 대로 살지 못함으로 불행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복음전파가 이루어 져야한다."<sup>73)</sup> 교회가 기독교 정체성을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 속에 투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독교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실천은 이웃과 사회를 향한 사랑으로 일치 된다.

성경의 주제는 다른 어떤 덕이나 가치보다 사랑이 지배적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목적도 사랑이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최고의 계명으로 강조한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한다. 기독교적 사랑의 본성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아들을 대신해서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정의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한일서 3: 16),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 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소라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한일서 4: 9,1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랑이 행위로 정의되어야 한다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현실 속에서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으키라는 부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명령하셨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사랑을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마태복음 22: 37,38)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경험 안에서 그 사랑의 역동성이 드러난다.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인 이웃에 대하여 누가복음 10장 25-38을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

73) Volf, *광장에 선 기독교*, 151.

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다가가 능동적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임을 깨닫게 하셨다.

또한 사랑에 대한 기한을 정의해 본다면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요한복음 13:1). 노년의 삶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며, 오랜 세월 소명을 다해 살아온 삶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때 연약해진 노인들을 끝까지 섬겨야 한다. 사랑에 대한 기독교 윤리는 노인목회를 실천하는데 있어 중요한 핵심가치이다.

## 2. 언약에 대한 기독교 윤리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빠질 수 없는 핵심적 요소이다. 성경에서 신앙의 기본 요소들은 모두 언약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결속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해 주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풀어주는 중요한 핵심이 된다.

성경의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표현된다.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자 하나님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언약을 제정 하셨다. 하나님은 은혜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다.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구약의 언약의 모형들과 예표들이 성취됨으로 구 언약의 많은 측면이 쓸모없게 되었다(히 8장-10장). 그러므로 언약 신학은 구약을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신약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로 본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린도후서 1:20)고 말한다. 하지만 이 사실이 도덕법으로 성문화된 행위 언약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 하셨으며(레위기 11:44) 신약에서도 주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거룩할 것을 요구 하고 있기 때문이다.(베드로전서 1:16) 부모 공경에 대한 언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여전히 우리에게 행위 언약의 규정을 성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복음은 마지막 아담이며 언약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셨고 그 완전한 의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택한 자들에게 거저 주셨다는 사실이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가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마태복음의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 이니라”라는 말씀처럼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된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신뢰와 위탁이 아들의 태도였던 것이다.

또한 성경은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효도 기록하고 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 이니 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 이라’ 하시되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것은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니라”라는 말씀의 본을 보인 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보여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바울 서신에도 이어져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골로새서 3:20).

더 나아가 자신의 부모에 대한 효나 부양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에게도 공경하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디모데전서 5:1),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디모데전서 5:2) 하라고 젊은이들에게 일러주고 있다. 또한 사도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의 모친을 자신의 어머니 같이 여겨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로마서 16:13)라고 문안 하였으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치 않은 행위 중 하나(로마서 1:30)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기독교적 윤리에 비추어서, 또한 언약신학의 측면에서 노인 목회의 신학적 원리를 찾아 접목 할 수 있다. 공교회로서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신앙을 가르치고 물려주

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노인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전파 사역이며 사랑 실천 사역이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여러 이유 가장 큰 것은 사랑과 언약에 대한 기독교 윤리를 진정성 있게 실천하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 교회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기독교 윤리와 도덕성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과 진정한 사랑을 담은 구제와 봉사를 실천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 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공공신학을 근거로 한 교회의 공교회성과 공공성에 입각한 공공선(common good)을 실천하는 것은 노인목회의 신학적 원리가 될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사랑과 언약에 근거한 목회적 실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지역 교회가 노인목회를 실천하기 위한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신학적 근거로 성경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이해와 공공신학을 살펴보았고 이를 소명과 코이노니아노의 관점에 이해해 보았다. 또한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사랑과 언약 신학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서 노인목회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해 보았다. 공공신학은 단순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참여와 관계를 통해 공공선에 기여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공공신학에서 신학의 공공성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어서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노인목회를 실천하고 있는 교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구 동신교회와,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중심으로 노인목회 사례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 제 4장

### 노인목회 사례연구

본 장에서는 노인 목회를 지역교회 목회 현장에 접목하여 잘 실천하고 있는 교회를 선정하여 사례 연구를 한다. 대구 동신교회와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사례가 그것이다. 노인목회를 위한 사례 연구로 이 두 교회를 소개하고 연구하게 된 동기는 기존에 많은 실버대학들은 노래와 레크레이션, 식사와 교양교육이라는 확실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비해, 대구 동신교회는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공적 교회로서 선교적이면서도 복음적 대안으로 노인목회를 실천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교회안의 노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되고 만족도 높은 노인목회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교회는 미래 한국교회가 지역 교회로서 어떻게 노인 목회를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 제 1 절 대구 동신 교회

대구 동신교회는 1950년 동인교회에서 85명이 분립 개척한 79년의 긴 역사를 가진 교회이다. 일반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자연스럽게 고령화 되어 있다. 하지만 동신교회가 위치한 대구 수성구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좋은 학군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므로 노년의 성도들도 많지만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도 많아서 현재 젊은 층과 노년이 함께 어우러진 7000여명의 성도들이 예배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사례 연구 방법은 사전에 미리 전화를 통하여 방문 취지를 밝히고 2018년 5월



17일(목) 실버대학이 운영되는 날에 교회 탐방을 신청하여 방문조사를 하였다. 실버대학 시작 10시경 도착하여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을 함께 하였고, 모든 순서가 마쳐진 후에 총 담당자와 스텝들 인터뷰를 통하여 노인목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 조사하였다. 교회의 시설과 사역들을 돌아보고 오후 3시경 교회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자료는 담당자와 인터뷰 한 내용과 교회 사무실에서 제공한 안내자료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얻었다. 서울과 대구의 거리가 먼 관계로 추가 방문은 하지 못했고 그 외 미비한 점은 추후에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보완하였다.

연구 내용은 각 교회의 역사와 교회 내의 노인목회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여 확립된 노인목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교회 전체 조직 안에서 노인목회의 역할과 각 교회의 특화된 사역들을 소개하고 평가 하였다. 평가는 각 교회 노인목회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특징과 장점들, 취약한 부분이나 단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대구 동신교회는 5대 사역 방향 -선교(전도), 예배, 교제, 교육(훈련), 봉사(사역)-을 사역의 기초로 삼고 있는 교회이며, 이 중에서 선교(전도)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는 5대 사역에 예배를 우선시 하고 있지만, 대구 동신교회는 선교를 일 순위로 내세우고 있다. 대구 동신교회의 실버대학은 선교(전도)위원회 내 복지부에 소속되어서 전도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중심적이 사역이 되고 있다.

대구 동신교회의 실버 대학은 선교적 차원에서 다른 교회들과는 차별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처음 실버대학이 시작되게 된 배경은 노인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는 ‘사랑의 집’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식사만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몇몇 성도들이 헌신하여 교회 지하에서 경로대학이 시작되었다. 지금은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모이게 되면서 선교적 차원에서 예배와 복음 전파를 실천하며 체계적인 실버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현재는 매주 목요일 800여 명의 노인들이 참여하는 실버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 1. 실버대학의 목적

고령화 시대에 노년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노년의 백발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이며 그 앞에 머리를 숙이라고 말씀한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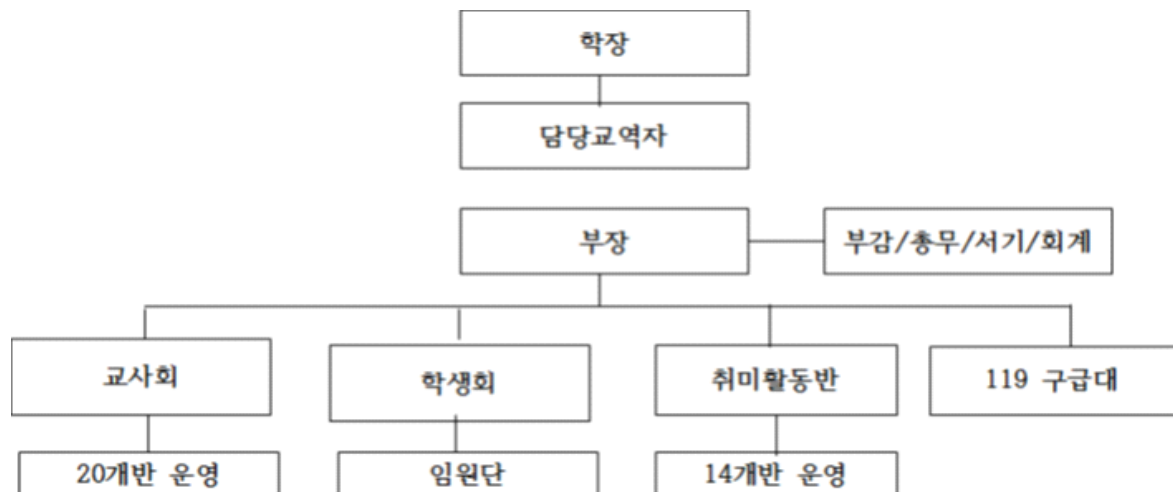
동신교회 실버대학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체 안팎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자들을 대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감당한다.<sup>74)</sup>

## 2. 조직 및 역할

동신교회 실버대학은 교회 내 복지부 안에 소속되어 있다. 복지부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생명공동체를 만든다는 미션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 속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을 누리게 하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동신교회 실버대학은 교회 내의 노인 성도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매주 교회로 초청하여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매주 목요일 마다 모이는 800여명의 노인들 중에 동신교회 성도들은 20퍼센트도 되지 않고 80퍼센트 이상의 노인들이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50퍼센트는 신앙이 없는 노인들이다.

매주 800여명의 많은 노인들 참석하고 있기에 안전하고,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행정 조직과 구체적 업무 분담이 필요 하였다.



<표 3> 동신교회 노인대학 업무분담표

74) 2018년 대구동신교회 매뉴얼, 378.

동신교회 실버대학의 특이한 점은 교사회와 함께 학생회가 조직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버대학이라는 이름에 맞게 노인들을 학생으로 여기며 자치회 형식의 학생회를 조직하여 임원단을 구성하였다. 방문하였을 때에 학생회 회장되는 노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 실버대학의 스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보통 실버대학이라고 하면 담당자와 스텝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노인들은 수동적이기 쉬운데 대구 동신교회 실버대학은 노인들이 자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지 참석한 모든 노인들이 적극적이고 활기차 보였다.

또한 담임교사 제도를 통해서 교사들은 자기 학생들의 출석과 결석을 매주 파악하여 병고나 사망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현재 담당 목사와 부장 그리고 20개 반의 교사들과 봉사자들, 강사를 제외한 총 31명의 스텝들이 실버대학을 매주 섬기고 있다.

### 3. 실버대학 업무 분담

대구 동신교회 동신 실버대학은 교회 공동체와 지역에 계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각종 다양한 취미 활동 반을 개설함으로 정서적 함양과 실버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불신 영혼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문턱을 넘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돕는다.<sup>75)</sup>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실버대학의 조직 편성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분담이 명시되어 있다.

학장: 실버대학 전체를 총괄 감독한다.

담임교역자: 실버대학 설교 및 교사회를 지도한다.

부장: 실버대학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부감: 실버대학 행정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총무: 실버대학 전체 행정업무를 실행한다.

서기: 실버대학 행정업무를 기록하고 보관한다.

회계: 실버대학 전체 예산을 집행한다.

교사회: 실버대학 학생들을 관리 지도하기 위해 아이디어회의를 하고 전체 프로

75) 2018년 대구동신교회 매뉴얼, 380.

그램을 계획 추진한다.

학생회: 학생 자치회가 조직되어 학생 임원들 간에 회의와 안건들을 수렴하여 교사회와 공유한다.

취미 활동반: 14개 반의 취미 활동 반을 운영하여 실버대학생들의 문화 영역을 주도한다.

119구급대: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안전을 책임진다.<sup>76)</sup>

대구 동신교회의 큰 특징은 행정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매년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교회 매뉴얼을 책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체계적이면서도 통일성 있는 행정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것처럼 실버대학 운영도 역할 분담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사역이 사전에 점검이 가능하며 혹시라도 담당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게 될 경우 누구든지 역할을 숙지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준비 되어 있다.

#### 4. 운영의 특징

동신교회 실버대학의 운영 방법을 살펴보고 동신교회 만의 특징도 살펴보고자 한다. 실버대학을 운영하는 목적은 노인들이 소외감이나 무료감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여서 여생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우며, 구원을 확신을 갖도록 하고 있다. 동신교회 실버대학 사역기간은 1년 내내 운영되지 않고 방학이 있다. 3-6월 운영, 7-8월은 방학, 9-11월 운영, 12-2월 방학이다. 곧 1년에 7개월 운영을 하고 5개월은 방학을 한다.

##### 가. 교회력을 기준으로 운영

대구 동신교회 실버대학의 사역의 특징은 교회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믿지 않는 노인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교회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믿지 않는 노인들에게 자연스럽게 교회와 신앙에 대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예를 들어 부활주일이 있는 주간에는 경로잔치를 열어 모든 노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고, 어버이 주일이나 가정에 달에는 반별시간으로 모이지 않고 전체특강으

76) 2018 동신교회 매뉴얼, 380.

로 좋은 강사를 섭외하여 노인들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추수감사 주일에는 한마음 잔치를 열어서 식사와 모든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 나.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 조사와 전략적 복음 전도

실버대학에 믿지 않은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감안하여 노인들의 신앙상태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부록 1에서 볼 수 있듯이 설문지를 통해 새로 오는 노인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정보를 확보하고 5회 이상 출석 한 노인들은 반에 배치하기 전에 무조건 따로 모아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교회 내에 전도폭발 5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수료한 봉사자들이 이 노인들을 만나 구원 상담을 통한 결신의 기도를 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마친 후에 취미반이나 각 반별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러한 사역의 연계는 전도폭발 훈련을 마친 분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만나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곧 실버대학이 노인사역만이 아니라 교회 전도사역과 연계하여 전도대상자들을 제공하는 현장이 되고 있다.

본 연구자가 탐방 하였을 당시에 15명가량의 노인들이 5주 동안 참석하여 앞에 나와 환영의 시간을 통해 선물을 받고, 그 후에 따로 준비된 방에 모여서 전도폭발 팀으로부터 복음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어린이 전도가 어렵고, 청소년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복음이 가장 시급한 노인들에게 매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결신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실버대학의 존재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게 한다. 전도폭발 훈련을 받은 성도들도 매주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구원상담과 결신의 기도를 통해 영혼구원에 대한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 있다. 설문지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믿음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전문적인 구원 상담자들을 연결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운영의 특징이다.

#### 다. 운영 내용 및 교과목

다양한 과목의 교실을 준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이 관심 있는 교과 과정에

참여함으로 대한 만족도가 높다. 또한 매주 같은 반에 모이게 된 노인들은 친구 사귀기에 용이하며 이는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 줄 수 있다.

구체적인 교과 내용은 노래반, 수지침반, 찬양반, 요가반 및 체조반, 스포츠 댄스반, 한국무용반, 사물 놀이반, 워십반, 성경 공부반, 한글반, 영어반, 치매예방 체조반, 미술반 등 다양한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즐겁고 유익된 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교과 과정은 때에 따라서 추가하거나 뺄 수 있다. 반별 교사들은 대부분 교회 내의 인력을 확보하여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모임 때에 레크리에이션 강사나 특강 강사들에게만 강사비가 지급된다.

또한 정기적으로 지역의 관공서와 연계하여 전문 생활에 필요한 강좌도 운영하고 있다. 경찰서나 소방서와 같은 관공서 직원들이 직접 나와 생활 안전과 노년의 건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교육 강좌들은 노인들의 복리후생과 건강관리, 행정적인 어려움에 있는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 외 년 2회 경로잔치를 운영하고 있다. 경로잔치는 실버대학 노인들 뿐 아니라 지역의 모든 노인들을 초청하여 정성스러운 식사와 선물을 증정한다. 경로잔치는 실버대학 행사 중 참가 인원이 가장 많으며 재정도 가장 많이 소요되는 큰 행사이다. 경로잔치를 운영하는 이유는 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대구시내에 모든 노인들을 초대하여 진정한 사랑을 담아 정성껏 섬겨드림으로 노인들의 마음이 교회와 복음에 대해 열리게 하며, 공교회로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칭찬과 소문이 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한다.

#### 라. 반별 담임 제도

동신 실버대학에 또 하나의 특징은 재적 850명의 실버대학 노인들의 매주 출석을 관리하는 반별 담임교사를 두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출석한 노인들이나 결석 한 노인들, 장기 결석자들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마치 교회학교에 반별 교사를 두어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듯이 노인들도 담임교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학교가 있듯이, 노인들을 위한 노인 교회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반은 30-60명

의 비교적 많은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담당 교사가 관리하며 반에 따라서는 보조교사가 있는 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반의 담임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평일(목요일) 낮 시간에 실버대학을 운영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운영진들은 헌신된 젊은 봉사자 섭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마. 학생 자치회

동신 실버대학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학생 자치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이 학생 자치회를 만들어 함께 운영에 동참하게 하고 있다. 교회 탐방 당시 자치회 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는데 올해 자치회 회장은 80대의 남자 분으로 동신교회 성도가 아니었다. 80대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교회 스텝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노인들이 소외되고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동신교회 실버대학은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함으로써 삶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더불어 노인들의 마음을 노인이 알 수 있듯이 자치회를 통하여 노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나, 불편한 것들을 소통하는 통로로서 자치회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 5. 평가

한 교회의 영혼에 대한 비전과 목적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대구 동신교회의 실버대학이다. 현대 70, 80대 노인들은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다. 그렇게 때문에 교회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먹을 것을 제공 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복지적 사역이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하여 믿음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은 것이다. 특별히 노인들은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연세를 가진 분들이다. 어찌면 그들의 인생에 복음에 대해 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대구 동신교회 실버대학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다른 교회에서 운영하는 실버대학은 복지적 사역에 중점을 두었다면 동신교회 실버대학은 교회력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매주 새로운 노인들

이 초청되고 있고 그 영혼들을 교사를 통해 출석을 관리하며 5주 동안 참석한 노인들은 무조건 전도폭발 팀과 연결되어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둘째, 반별 운영 또한 노인 개별적 관리가 긍정적이다. 일반 실버대학은 교양과목들을 많이 개설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신교회 실버대학은 강의와 함께 반별 교사가 세워져서 교육과정 자체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노인 한 분 한 분에게 구체적인 관심을 가진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많다. 하지만 실버대학에 오면 반별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며, 빠지는 경우에는 주중에 연락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단지 한 번의 구원 상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다.

셋째, 노인 시설과 안전에 철저한 대비가 되어 있다. 동신교회 실버대학은 본당 건물 맞은편에 위치한 비전관에서 행하여지는데 건축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현대적이고 편리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가장 좋고 넓은 공간을 노인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안전을 위해서 다리가 건강한 분들이라 하여도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2대 있었고, 양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에 차단 봉을 설치하여 노인들이 계단을 전혀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노인들이 계단에서 다치기라도 한다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 더불어 노인들이기에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사고를 대비해서 119 구급대를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안전봉사요원이 실버대학이 운영되는 시간에는 배치되어 있어서 신뢰를 주었다.

넷째, 실버 대학을 통해 성숙한 노인의 생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넘게 실버대학을 섬기고 있는 부장 권사는 인터뷰에서 처음에 노인들이 말도 잘 안 듣고 멍게 여겨질 때가 있었다고 고백한다. 노인의 특성상 쉽게 고쳐지지 않은 자기중심적 성향 때문에 앉으라는 곳에 앉지 않고, 먼저 온 사람이 나가기 좋은 강의자의 끝에 앉아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일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며,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거려서 예배와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 노인이 되면서 나타나는 자기중심적이며 타협하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관성 있는 반복적 교육으로 질서를 바로 잡고 있으며, 지금은 많은 부분에



서 성숙된 태도로 실버대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고백한다. 이것은 단지 노인들을 보살피는 사역을 뛰어 넘어서 노인들을 교육하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건강한 노인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이런 노인들에 대해 교회가 보살핌의 목회에서 교육목회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대구 동신교회의 실버대학은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이렇듯 동신교회의 노인목회를 위한 실버 대학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보여진다. 우선 첫째, 실버대학이 목요일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일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본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유기적 교회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 교회 담당자와 스텝들 외에는 실버대학의 노인들과의 만남이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기체로서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다.

둘째, 반별모임이 중요한 만큼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헌신된 자원봉사자 인력수급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한 반의 인원이 30-60명까지 되어 있어서 적은 수의 교사가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렵고, 봉사자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양질의 교육과 관리를 위해 사명감 있고 헌신된 자원봉사자 수급이 과제이다.

## 제 2 절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1997년 1월 개척하여 지금까지 성장을 거듭해온 교회이다. 담임목사인 정성진 목사는 기존의 일반적인 목사들과는 다른 개혁 목회를 하고 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모토 아래 개혁교회의 모델을 만들고자 본인이 먼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규약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그 예로 담임목사의 정년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원로목사 제도를 없앴다. 이러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호응하여 시무장로도 65세 정년에 단임제를 선포하고 교회 리더십이 먼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교회이다. 또한 교회 예산에 있어서도 가용 예산의 51퍼센트를 구제와 선교에 쓰고 분기별로 예산 결산 자료를 전 성도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구제와 선교에 중점을 두고 이를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교회 내의 노인 성도들을 위한 교육과 복지 차원에서의 사역들을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노아스쿨(노년은 아름다워라-이하 노아스쿨)이라는 노인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노아스쿨의 특징은 대구 동신교회나 일반 실버 대학과 다르게 본 교회의 노인성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 동신교회는 지역의 모든 노인들을 초청하고 먹을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노인복지와 복음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노아스쿨은 본 교회에 등록된 노인 성도들의 복지와 전문화된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노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므로 참여 노인들로부터 높은 만족도 자랑하고 있다.

사례연구 방법은 대구 동신교회와 마찬가지로 사전 전화를 통하여 방문취지를 밝히고 2018년 5월 31일(목) 노아스쿨이 운영되는 날에 교회 탐방을 신청하여 방문조사를 하였다. 노아스쿨이 시작되기 이전인 10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을 함께 하였고, 모든 순서가 마쳐진 후에 담당 교육목사와 인터뷰를 하였다.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여 돌아왔다. 또한 자료는 담당자와 인터뷰 한 내용과 교회 사무실에서 제공한 안내자료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얻었다. 그 후 2018년 8월 7일(화)에 2차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대화의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졌다. 그 외 미비한 점은 추후에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보완하였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지역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일산에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의 노인 성도들의 생활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높다. 노아스쿨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대상 노인들의 필요를 잘 이해하고 차별화된 방법으로 학교를 운영함으로 높은 참여와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다. 노아스쿨은 제한된 인원만 신청할 수 있는데 매년 년 초에 노아스쿨 등록이 시작되면 등록 당일 오전 중으로 300명 인원이 마감된다고 한다. 그 만큼 만족도가 높으며 노아스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이나 자녀들까지도 부모님이 노아스쿨에 다니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본 연구자가 탐방하였을 때에 가장 먼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크고 아름다운 성전과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예배실이었다. 그리고 노아스쿨에 참여하는 노인들도 의모와 복장이 세련된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복지혜택을

받기위해 참여하는 것보다는 노아스쿨 자체에 대한 기대와 만족감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아스쿨은 대구 동신 교회 실버대학 노인들과는 다른 접근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현재 우리사회의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6·25와 같은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세대이기에 쌀이나 먹을 것에 마음이 움직이는 세대이지만 앞으로 고령화 되어가는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5년생)는 먹을 것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세대가 아니다. 이들은 노년의 시기에도 자기 발전과 사회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을 하기 원하는 세대이다. 그런 점에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노아스쿨은 미래적 차원의 노인목회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 1. 노아스쿨의 운영목적

노아스쿨은 노인들에게 평생 학습교육을 통해 노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기에 끊임없는 자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 활동 강화와 심신의 건강, 그리고 봉사자로 자아통합을 꾀하며 천국(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정리하며 가정에 믿음을 끼치고 나아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sup>7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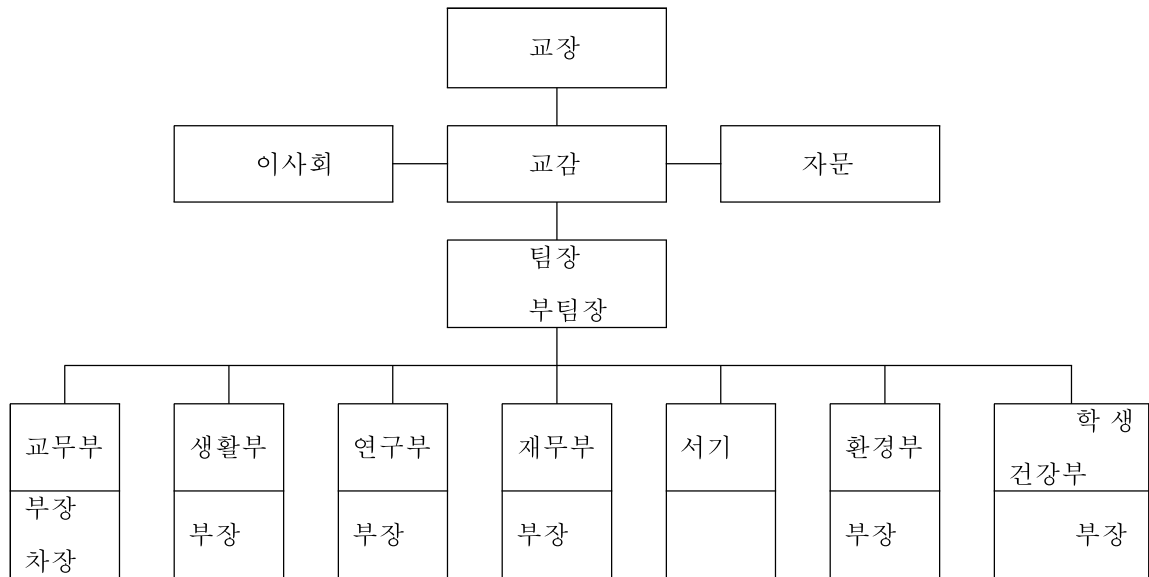
### 2. 조직 및 역할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노아스쿨은 복지문화부 안에 소속되어 있다. 곧 노인 사역을 복지와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 동신교회도 복지부 안에 실버대학이 있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목회자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에 의해 움직이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이다. 노아스쿨은 담당 사역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스태프들이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앞에 동신교회 실버대학은 복지와 복음 전파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면, 거룩한 빛 광성교회 노아스쿨은 복지와 교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조직에서 특이한 점은 연구부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부는 노아스쿨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 나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하여 집행하고 있다. 현재 노아

---

77) 거룩한 빛 광성교회 홈페이지, 노아스쿨

스쿨의 조직은 1명의 교역자와 10명의 운영위원, 10명의 교사, 14개의 학과목 반이 조직되어 있다. 구체적인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4> 노아스쿨 조직 및 역할

운영위원들은 각각 자기 자신이 맡은 역할이 있다. 초기 노아스쿨은 가요와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대부분이었다. 리더십의 교체와 스텝들의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동요와 가스펠로 바꾸어 가고 있으며, 담당자들이 순서지를 만들어서 체계성을 잡아 가고 있다. 특별히 현재 노아스쿨을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전체 교육부를 담당하는 교육목사가 담당하고 있어서 평생교육을 목표로 어린 아이에서 노인까지의 통합된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사회: 노아스쿨 운영에 후원금으로 지원한다.

교장: 노아스쿨의 총괄책임을 맡는다.

교감: 학사업무 및 특강일정을 총괄 관리한다. 기도회 (주1회)를 주관한다.

팀장: 노아스쿨의 업무조율 및 조정을 맡는다. 학사, 교무행정 수립, 학생회 관리, 여행추진, 재무관리, 지출 결의서

부팀장: 이사회 섭외 및 관리, 년1회 이사회의 애찬 만남을 추진한다. 팀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교무부장: 입학원서, 졸업일정 및 수강신청, 출석부 관리, 교무일지 정리, 매주 행정실 출석인원 보고

교무차장: 제반서류

생활부장: 수업준비(노래방 설치, 음향, 마이크 등등) 홍보, 현수막

연구부장: 광고, 담당교사의 대표로 교사관리, 연구활동(기획, 집행)

재무부장: 노아스쿨의 전반적인 재정을 관리한다.(일반재정 및 식당) / 현금관리 및 재정관리, 결산보고 및 예산안

환경부장: 특별행사시(입학, 졸업, 생일 및 기타 프로그램) 환경 조성

학생건강부장: 간식, 생일선물, 특강강사 접대, 월례회간식, 아침안내 담당

서기: 회의록 정리, 각종 유인물, 문서보관 정리

교사: 수업진행, 출석관리, 학생관리, 월례회 참석

동아리활동: 학생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특별히 노아스쿨은 봉사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봉사자 지침서를 마련하여 자신이 해야 할 역할들을 분명히 숙지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록 2. 참조)

노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봉사가 필요한 대상이다. 특별히 노인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양질의 자원봉사자들도 점점 더 많이 필요하다. 현대의 노인들은 사회에 뒤쳐지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지식적 욕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복지나 보호차원이 봉사자보다 노인들의 욕구를 만족 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자원 봉사자들의 필요하다. 앞으로 점점 더 자원 봉사자들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 3. 노아스쿨 운영의 특징

거룩한 빛 광성교회 노인목회는 노아스쿨이라는 차별된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노아스쿨의 참여 대상자들은 거룩한 빛 광성 교회의 노인성도들로서 지역적 특성과 노인들의 경제적 교육적 수준을 고려하여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다. 이들은

노인이지만 여전히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으며, 자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맞게 노아스쿨은 좋은 사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역운영을 이루고 있다. 노아는 “노년을 아름답게”의 약자인 동시에 믿음의 사람 노아의 이름이다<sup>78)</sup>

노아스쿨 운영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점심은 무료로 제공되고 연간 교육비는 자부담 3만원이다. 7,8월 여름방학과 1,2월 겨울방학이 있으며 커리큘럼에 따라 생일잔치, 호도관광, 테마여행, 명랑운동회, 수학여행 등 소속감을 통한 활기찬 노년의 삶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노아스쿨은 노년에 대한 이해를 긍정적으로 하며 건강한 노년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 하고 있다.

#### 가. 은사자 중심의 사역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로서 평신도나 새 신자에게도 과감하게 열려 있는 은사중심 사역을 하고 있다. 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직분이 관계없이 팀장이나 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으며 재정분야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교회이다. 그래서 은사중심 사역을 활성화 시키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노소불구, 은사자 우선”, “신구(新舊)불구, 은사자 우선”, “공로불구, 은사자 우선”, “강약불구, 은사자 우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sup>79)</sup>

이처럼 시간과 장소, 재정과 인력을 활용하여 노아스쿨에도 전문적인 평신도 봉사자들이 많이 섬기고 있다. 일산이라는 지역 특수성에 맞게 성도들 중에 전문 인력들을 발굴해 내고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은사자 중심의 사역을 하기에 완성도 높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봉사자들 자신들도 기쁨과 만족감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

#### 나. 사전 등록

노아스쿨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미리 등록을 받은 300명의 등록된 노인들만 참석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미처 등록을 하지 못해서 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일단 등록이 된 노인들에게는 차량운행에서부터 시작하여 최선의 섬김과 교육을 제공

78) 거룩한 빛 광성교회 안내 책자 65.

79)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8.

하고 있다. 등록된 노인들만 참석하기에 결석률이 적고, 교육에 있어서도 체계적이면서 연계된 교육이 가능하다.

대구 동신교회와의 큰 차이점은 동신교회 실버대학은 80퍼센트 이상이 외부에서 참석하는 분들이라면, 거룩한 빛 광성교회 노아스쿨은 거의 대부분이 본 교회 성도들이다. 그 이유는 주일날 시간을 정해서 등록을 받기 때문에 외부의 노인들이 등록하기에 어렵고, 등록 당일 빠른 시간에 등록이 마감되기 때문에 외부 노인의 등록은 더욱 쉽지 않다. 이렇게 노아스쿨은 본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훈련이 된 노인들은 주일날 다른 노인들을 섬기는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노아스쿨은 노인 봉사자들을 훈련시키고 배출 시키는 노인목회에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 다. 투명한 재정 운영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하는 교회이다. 매주 주보에 전주 현금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열어놓았다. 더불어 매년 외부감사를 시행하여 교회 내에 모든 재정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있다.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생기는 유익은 내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사역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전체 사역의 큰 그림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이 맡은 부서의 사역을 보기 때문에 부서 이기주의가 줄어들게 된다.

노아스쿨이 더 많은 노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한된 인원만 등록받아 운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이유도 크다는 말을 담당자에게 들었다. 등록비를 년 3만원으로 받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전체 운영 예산에 1/8뿐이 되지 못한다. 나머지 7/8부분은 교회에서 재정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가용 예산의 51퍼센트를 구제와 선교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이다.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큰 규모의 예산이 구제와 선교에 운영되고 있기에 노아스쿨에 더 많은 재정을 사용한다면 더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부서들이 자기부서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 재정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라. 본 교회 노인 성도들을 위한 돌봄

노아스쿨은 대부분 거룩한 빛 광성교회 본 교회 노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 성도들은 사역에서 은퇴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소외된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여도 담임목사나 교역자들이 다른 사역에 바쁘다보면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노아스쿨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담임목사와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다. 주일날 관심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노아스쿨을 통해서 노인 성도들을 섬김으로 소외감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교역자들도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면서 잊고 있었던 교회 내 노인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노아스쿨은 체조, 가스펠, 손뜨개, 일어, 미술, 탁구, 성경공부 등 14개의 다양한 학과목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1회 매주 목요일에 운영되고 있다. 주중에는 빈 공간이 많아서 모든 학과목 반이 좋은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주중에 노아스쿨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교회 안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만족감을 가지고 노아스쿨에 참여하고 있다.

#### 4. 평가

동신교회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노아스쿨을 참여하는 노인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였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노아스쿨을 사례연구 교회로 선정하게 된 계기는 아내의 친구가 친정어머니께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성도인데 노아스쿨에 참여하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곁에서 노아스쿨과 함께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자녀로서 참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연세가 높아질수록 부담감을 갖는다. 만약 교회가 부모의 노년을 삶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책임져 준다면 자녀들에게 큰 안정감을 줄 것이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노아스쿨의 장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아스쿨은 은사중심의 평신도 사역이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전문적 은사자들을 발굴하여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광성교회 안에는 인적자원이 풍



성하다는 장점을 살려서 은사자를 발굴하여 사역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노아스쿨에 대한 참여도, 만족도가 높다. 이는 지역적 특성으로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인적 자원과 교회의 비전이 동기부여가 되어 양질의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수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노아스쿨은 자유로운 학교다. ‘스쿨’이라는 명칭처럼 노아스쿨은 학교같이 운영되고 있다. 모든 운영은 체계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커리큘럼에 의해서 운영된다. 학업을 하는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있기 마련이지만, 노아스쿨의 학생들은 전문적인 강사들을 통하여 자신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우고, 웃고, 친구들을 사귀고 교제하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유로운 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제한된 인원만 등록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미리 등록된 정해진 인원과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이기에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 될 수 있고, 철저한 준비와 양질의 교육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특히 본 교회 성도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주일에 관심가지지 못했던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노아스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취약성들이 발견된다. 첫째, 등록된 인원만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어도 등록을 하지 못한 노인들이나, 단기간만 참여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에게는 노아스쿨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등록의 기회를 놓치면 한 학기를 기다려야 한다. 앞선 동신교회는 누구에게나 무제한적으로 열려있었다면 노아스쿨은 등록된 노인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큰 단점이기도 하다.

둘째, 담당자 인터뷰 시에 어려운 점을 질문하였을 때에 노아 스쿨만으로는 큰 무리 없이 운영하고 있지만, 평생교육 차원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체계성을 잡아가야 하는 것이 남아 있는 큰 숙제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결국 평일 날 행하여지는 동떨어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학교, 장년부와 연결된 유기적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 동신교회의 실버대학과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노아 스쿨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가좌제일교회의 노인목회 현황과 앞으로의 노인 목회 전략과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 제 5 장

### 가좌제일교회 노인목회 방안

#### 제 1 절 노인목회 시작 배경

본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가좌제일교회에 대한 소개와 교회 공동체가 품고 실천해온 비전과 사명을 되짚어 봄으로 공적 기관으로서 교회가 지역을 섬겨 왔던 사역들을 해석하고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는 50년 교회 역사 위에 후임으로 이 공동체에 심겨진 리더로서 그동안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며 지나왔던 환경적, 정서적, 경험적인 모든 토양 위에,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본 연구자의 목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지역교회 목회는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가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섬기는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세상과 소통하고 지역을 향해 열린 마음과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 교회는 세상을 등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북가좌동에 가좌제일 교회의 존재 이유와 의미는 성도들 뿐 아니라,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있어야 한다. '만약에 어느 날 가좌제일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또는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본인이 스스로에게, 때로는 성도들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다. 과연 본 교회가 더 이상 이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지역주민은 함께 안타까워 할 것인가? 과연 60년 가까이 지역과 함께 해왔던 교회의 존재가 이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까? 만약 그렇지 못

하다면 가좌제일교회는 분명 다시 한 번 그 소명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다.

교회가 교회로서 지역에 존재 하는 것 자체도 세상을 향한 묵직한 외침이라는 점에도 시대적 흐름을 분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영혼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목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물질만능,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오히려 외로움과 상처가 많은 현대인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려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특별히 본 교회로 부임한 이후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본 교회의 고령화를 피부로 느끼면서 노인목회에 대한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세대와 노인 성도들을 위한 교회적 차원의 변화와 대비가 시급하다. 이러한 고민과 생각이 노인목회를 위한 실버처치의 발단이 되었다. 교회와 지역사회가 직면한 노인문제를 교회적 차원에서 헤쳐 나갈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서 실버처치 사역은 교회 공동체만이 감당 할 수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좋은 대안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교회가 공적교회로서 노인들을 돌보고 섬기는 작은 실천이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사회적 책임과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결과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번 장에서는 가좌제일교회에 대한 이해와 공교회로서 가좌제일 교회가 실천해 왔던 사역들을 살펴보고, 그 사역의 토대 위해 시작된 실버처치의 운영과 실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사례 연구하였던 두 교회와 실버처치사역을 통해 앞으로의 가좌제일교회의 노인목회 전략을 논하고자 한다.

## 제 2 절 공교회로서의 가좌제일교회 사역의 이해

### 1. 교회의 역사, 사명선언문, 정체성

가좌제일교회는 대신 교단의 교회로서 1961년 황의영 전도사와 5명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산 31-7(현 교회 맞은편) 공터에서 뽕엘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대신 교단이 설립될 때에 가좌제일교회가 세워지면서 대신 교단과 교회 설립의 역사가 동일하다. 다시 말해 가좌제일 교회는 대신교단 1호 교회라는 역사성을 가지

고 출발한 교회이다. 그 후 1969년 북가좌동과 남가좌동 전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교회의 이름을 뽐엘교회에서 가좌제일교회로 개명하였다. 1972년 황의영 목사가 사임을 하고 제2대 원효식 목사가 당시 전도사로 부임하여 지역 복음화와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 2011년 2월 제 3대 본 연구자가 담임 목회자로 청빙되기 전까지 만 39년 동안 교회는 원효식 목사를 중심으로 대내외적인 성장과 발전이 있었다.

2011년 7월 교회 설립 50주년과 대신 교단 설립 50주년을 맞아 원효식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장기원 목사를 제 3대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공식적인 교회 사역의 전수가 이루어 졌다. 그 후 본 연구자는 2011년 2월 이후 현재까지 8년째 가좌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다. 가좌제일교회는 교회 역사 58년 동안 3명의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성장해왔다.

가좌제일교회는 한국교회의 가정 사역에 초석을 놓은 교회답게 가정사역과 상담사역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경험 하였으며, 본인이 본 교회에 부임해 왔을 당시에도 공동체 분위기가 가정처럼 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구 구조의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기존의 성도들은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의 축소와 교회 학교의 감소로 성도들의 인구 구조는 고령교회가 되어 가고 있었다.

가좌제일교회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사명 선언문을 공유하며 모든 사역과 모임에 있어 교회의 사명을 숙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66권이 진리이며, 인생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의 가정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천대까지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그 가정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림 1> 가좌제일교회 Logo-Church Identity

가좌제일교회 CI(Church Identity)의 기본개념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교회와 가정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CI의 구성은 예수그리스도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구원공동체를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이 있고, 그 교회 안에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회복된 가정이 형상화 되어 있다. 또한 그 가정 안에는 경건된 부모와 그 부모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가 형상화 되어 있으며, 세계선교의 비전을 담은 원이 형상화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가 덮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2. 가정 사역

일찍이 가좌제일 교회는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교회와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 성경적 가정관을 가르치며 가정 사역을 시작하였다. 1970년대 북가좌동 지역에는 남편을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지역에 산업역군으로 보내고 어린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았다. 교회는 젊은 여자 성도들을 모아 성경공부와 주부대학을 비롯하여 가정 안에서 여성의 역할과 성경적 가정관을 심어 주었다. 또한 교회학교를 통해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을 돌보았다. 당시에는 남편과 오랜 시간 헤어져 지내는 부부들이 남편이 돌아왔을 때에 가정이 깨어져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좌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여자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과 가정을 잘 지켰다. 몇 년 후 해외에서 돌아온 남편들은 아내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정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 온 것을 보고 교회로 올라와 목사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일들이 있었다.

2002년도에는 본 교회를 중심으로 서부 아버지학교를 개설하여 가정 안에서 아버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였다. 서부 아버지 학교는 지금까지도 지역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사회 운동으로 실천되어지고 있다. 이어서 2003년 11월에는 서부 어머니 학교도 개설하여 2010년까지 운영하였다. 2004년에는 교회 안에 “엘림 가정상담소”를 개설하여 깨어진 가정과 위기 속에 있는 가정들을 위한 가정상담소와 행복한 가정 학교를 열어 건강한 가정을 세워 가기 위한 강의와 세미나를 개설하였

다. 가좌제일 교회는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도우며 지역과 함께 성장 발전해 왔다.

### 3. 어린이집 운영

지역사회를 위한 “구립 가좌제일 어린이집”을 올해로 40년째 운영하고 있다. 1978년에 “제일 유치원”을 개원하여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을 시작 하였다. 당시에는 어린이들이 많은 반면 북가좌동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나 시설이 없었다. 교회는 어린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어린이들을 모아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였다.

1983년 정책적으로 새마을유아원이 세워지면서 교회는 서대문 구청과 함께 ‘새마을 유아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교회가 교회의 부지를 국가에 헌납(기부채납)하면서 서대문구청에서 그 부지위에 유아원을 건축하였다. 다음해 1984년 교회 부설 가좌제일 새마을 유아원이 완공되었고 ‘제일 유치원’을 운영해 오던 교회가 ‘새마을 유아원’ 운영을 맡게 된 것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올해로 40년째 지역 사회를 위한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다. ‘가좌제일 어린이집’은 교회가 서대문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하고 있으며, 지역 내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교육 및 취학 부모에 대한 전도 봉사 활동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현재 ‘가좌제일 어린이집’은 총 7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원장과 교사들을 비롯한 전문 인력 18명이 88명의 어린이들과 지역의 젊은 가정들을 섬기고 있다.

최근에는 교회가 오랜 세월 운영해 온 어린이집 상황이 직접적인 종교성을 드러 낼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로 제한을 받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사회적으로 유아교육의 문제점들이 늘어나면서 구청의 관리 감독에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반 기독교적인 젊은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민감함을 드러내며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기독교 교육을 반대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모든 교사 들은 변함없는 사랑과 선교적 마음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지역을 섬기고 있다.

### 4. 장애인 사역

교회 안에 정신지체 자녀를 둔 가정이 생기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의 필요를

발견하게 되었다. 2000년에 정신지체 딸을 둔 집사 한 명과 사역자 한 명이 주축이 되어 지역 가운데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방문 상담하고 초대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장애를 가진 자녀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니 24시간 장애인을 돌보아야 하는 가정의 부모들은 잠깐이나마 쉼의 시간을 누리게 되었다. 지금은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복지관과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당시 북가좌동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단체가 거의 없었으며, 특히 지역 교회 가운데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가 있는 교회는 한 곳도 없었다.

이러한 교회와 지역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2000년도 1월부터는 교회학교 안에 ‘사랑부’를 신설하여 특성에 맞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사랑부는 교사들이 거의 일대일로 장애인을 돌보며 함께 예배와 활동을 하고, 점심 식사까지 마친 장애인들을 차량으로 안전하게 귀가 시키고 있다.

또한 사랑부에서는 부모 간담회, 계절별 야외 활동, 여름에는 가족이 함께 하는 캠프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사랑의 밤’ 행사를 통해 1년 동안 사랑부를 위해 기도하고 섬겨주신 교회 성도들과 장애인 가족들을 초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회 사역 안에 사랑부의 존재는 성도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지역 안에서도 귀한 사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본인이 가좌제일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년 5회(성탄절, 추수감사예배, 진급예배, 부활주일예배, 장애인 주일예배) 교회학교 및 사랑부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교회가 유기적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함이다.

현재 사랑부는 18년째 사역을 이어오고 있고, 재적 18명의 청년들과 11명의 교사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헌신된 봉사자 발굴의 어려움과 예배실 공간에 한계가 있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7, 28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으며 따라서 정신지체 장애인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있어서 제외되지 말아야 한다는 공공성을 실천한 사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인은 사랑부 청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다. 비록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세례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고 오랜 시간 반복적인 예배를 통해 복음을 접하였고 복음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있었다. 본 교회는 사랑부 청년들에게는 그림 카드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신앙고백하게 한 후에 세례를 베풀고 있으며, 세례를 받은 사랑부 청년들은 가좌제일 교회의 정식 세례교인으로서 성찬예식에 동참하고 있다.

## 5. 예손 선교회

2000년에 교회 안에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부 부서 설립과 함께 교회 안에 장애인 시설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동기가 생겨났다. 당시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시설을 돕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월5000원 이상의 회비를 모금하면서 “예수님의 손길”이라는 의미의 ‘예손 선교회’가 시작 되었다.

예손 선교회의 주요 사역은 장애인 시설을 중심으로 월1회 식사 봉사와 빨래봉사를 해왔다. 당시 경기도 향동(교회에서 차량으로 3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천사의 집’이라는 장애인 시설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10여명의 회원들이 5~6명씩 조를 편성하여 월 1회 시장을 봐서 반찬과 밥을 만들어 섬겼으며, 장애인 시설의 빨래를 돕는 일을 하였다.

현재 예손 선교회의 활동 상황은 5곳의 장애인 기관에 물질로 후원하는 사역만 하고 있다. ‘천사의 집’이 재개발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로 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졌고 10년 동안 봉사해온 봉사자들이 노령화 되면서 육체적 봉사가 어려워졌다. 현재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의 사역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문봉사는 중단한 상황이다. 초창기 봉사자들의 노령화로 인해 2011년도부터는 재정 후원만 감당하고 있다. 현재 예손 선교회의 회원은 50여명이며 5개의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천사의 집’을 비롯해서 고양시에 있는 ‘홀트 아동 요양복지 타운’, ‘서울 암 요양병원’, ‘주람 동산’과 가좌제일교회 ‘사랑부’를 후원하고 있다.

## 6. 오병이어의 사람들

가좌제일교회 안에 지역사회를 위한 구제 사역을 동기로 자발적으로 생겨난 모



임이 있다. 2010년도부터 시작된 ‘오병이어의 사람들’은 주로 교회가 위치한 북가좌 1동과 2동 동사무소와 연결되어 독거노인세대와 다문화 가정에게 명절(구정, 추석)때마다 선물 나눔과 10월~11월 사이에 김장 나눔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오병이어 사역은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특별히 김장 나눔 행사에는 다문화 가정의 젊은 다문화 주부들을 초대하여 함께 김장을 만드는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점심 식사로 절인 배추와 함께 보쌈을 먹으며 교제를 하고 있다. 식사 후에는 각 가정별로 한 박스 씩 김장을 가져가고,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는 직접 방문하여 배달을 하고 있다. 대상들은 매년 50~60세대 북가좌 1동, 2동 동사무소에서 추천 받은 가정 30가정과 가좌제일 교회 성도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가정 20~30여 가정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재정은 50여명의 회원들이 월 1만원의 지목 현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오병이어와 사람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사랑의 반찬배달 서비스를 시작 하여 독거노인 및 식사가 어려운 성도 14가정에게 주 1회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사역도 실천하고 있다. 반찬 배달 서비스가 시작된 배경과 동기는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 노인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시작 되었으며, 노년기에 찾아 올 수 있는 질병, 빈곤으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밑반찬을 제공함으로 노인들의 영양과 건강을 돌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지역의 노인, 장애인 세대에 도배와 장판 교체 또는 시골 교회 시설 보수 하는 일에 참여 하며 활발한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 7. 사회교육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적으로 지역사회 복지관 개관이 많아지고 활성화 되면서 가좌제일교회도 사회교육관을 건립하였다. 사회 교육관은 단지 주일 학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열린 공간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1999년에 본당 건물과 이어 3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2000년에 사회교육원 개원예배를 드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강좌들과 공부방도 개설하였고, 2006년도에 교육관 4층 증축을 하였다. 본인이 부임한 후 2012년에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마련을 위해 교회육관 3층을 리모델링하고

“Promise Land”라 이름 지었다 현재 교육관 3층에는 영아부부터 소년부까지 교회 학교 예배 공간과 실내 놀이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

초기 사회 교육관을 설립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강좌와 프로그램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역이 지속 가능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이를 위한 전임 사역자가 없어 사역의 체계와 전문성의 결여되었기 때문이며 둘째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사회적으로 사회복지관과 지역 문화 센터에서 많은 강좌가 우수 죽순처럼 일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가 언덕이라는 접근성의 약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공부방 운영도 교회안의 온전한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다.

현재 사회 교육관은 주일 교회학교를 위한 예배 공간으로 사용 할 뿐 아니라 평 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서대문구(문석진 구청장)와 공간 나눔 협약을 맺고 마루가 깔린 영아부실, 유치부실, 한 벽면이 거울인 소년부 실, 70석 규모의 청년부실, 130석 규모의 소망홀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며 지역 주민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도록 공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주중에는 구립 가좌제일 어린이집에서 체육 수업 및 활동 수업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졸업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에 무료로 공간을 대여 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피아노 학원 및 사업장들은 소액의 대관료를 (전기세 및 관리비) 지불하고 130석 규모의 소망홀 강당을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58년의 교회 역사와 함께 교회가 공적 기관으로서 지역과 공공의 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해 왔던 사역들을 정리했다. 지역교회로서 지역의 복음전파와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을 섬겨 왔던 사역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탄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그 외에도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 본부와 함께 연계하여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 서명을 하였으며, 단 회적으로 국가적 재난이나 사회적 어려움, 북한 동포 돕기, 세계적 재난 상황에 활동 중인 국제단체들을 돕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때 그때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물질로 섬기며 참여 하는 일을 해왔다. 이렇듯 오랜 역사 속에 가좌제일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개교회의 사역에만 치중하지 않고 지역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실천해 왔다. 이러한 배경과 역사에 기반과 뿌리를 두고 목회 현장

에 노인사역을 세워 가고자 한다.

### 제 3 절 가좌제일교회 노인사역과 실버처치

현재 가좌제일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섬김의 사역은 ‘사회부’와 ‘오병이어 사람들’을 주축으로 매주 일 회 사랑의 반찬 배달, 명절 떡과 선물 나눔, 김 장 나눔, 노인세대 도배, 장판 교체가 있으며, ‘경로부’를 중심으로 어버이날 어르신 잔 치, 가을 경로여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역들은 잘 정착되어 실천되고 있다.

2011년 초에 본인이 가좌제일교회로 부임한 이후 한국사회의 급격한 고령화가 도래하였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저 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에서 예외 되는 곳은 한 곳 도 없을 것이다. 부임 초기에 다음세대와 교회학교 중요함에 마음과 생각이 치중되어 노인사역에는 상대적으로 집중하지 못했었다. 그러던 중 연말에 연령별 선교회 모임을 조정하는 중 노인의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젊은 연령 층의 인원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70세 이상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결국 어느 해에는 연령별 선교회의 인원 조정을 위해 선교회의 기준 연령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8년의 목회를 실천하면서 급속도로 다가온 교회의 고령화를 관과 할 수 없었다. 이런 교회적 상황과 고민 중에 2016년 실버처치를 실천하고 있는 윤인규 목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 후 몇몇 성도와 함께 실버처치 세미나를 참여 하였고 세미나에 참여했던 성도들과 함께 2016년 4월부터 실버처치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실버처치를 시작할 때 교회 안에서는 젊은이와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물론 다음세대가 중요하다. 그러나 노인세대는 시급하다. 교회적으로 는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다음세대나 노인세대나 모두가 소중한 영혼들이고 구원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중요 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혼들은 소중하며 힘없는 노인이 되었다 고 해서 복음에서 제외 되거나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시작된 실버처치 예배 사역은 현재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지속 되었고 놀라운 노인목회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교회 안에 어린 자녀들을 위한 교

회학교가 있듯이 노인들을 위한 실버처치도 꼭 필요하다. 본인은 실버처치 사역을 실천하면서 노인목회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본 논문의 주제를 정하는데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1. 노인목회의 배경과 내용

앞에서 언급 했듯이 현재 가좌제일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58년 교회의 역사와 함께 교회가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 본인이 담임목사로 부임해 온 2011년 초에 장년 성도들의 평균 연령은 57세였고 만 7년이 지난 2018년 1월 현재 장년 성도들의 (청년부 제외) 평균 연령은 63세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7년간 새로 등록한 새 신자들의 평균 연령도 57세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교회적 상황 속에 그동안 교회가 공적 교회로서 감당해 왔던 사역으로 노인들을 위한 노인목회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임을 인식하고 2016부터 실버처치를 시작하게 되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노인들에게 교회만이 제공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 노년기에 찾아 올 수 있는 소외와 외로움을 건강하게 극복하며, 남은 생을 소망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 가. 전도

실버처치의 주요 대상자는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들이 주로 모여 있는 노인정이나 아파트 정자에 나가 노인들을 직접 만나 초대장을 전달한다. 초대장에는 쌀 쿠폰 도장이 찍혀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면 쌀을 1킬로그램씩 나누어 드린다는 것을 소개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전도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 먼저는 실버처치는 주일이 아닌 평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인을 전도 해보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주일에 교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과 헌금에 대한 부담이다. 노인들의 사고에는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매주일 와야 하고 또 주일날 교회에 오면 헌금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하지만 평일 모임에는 헌금 시간도 없고, 자신이 빠지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빠져도 된다는 편안함이 있다.

또한 노인들에게 있어서 쌀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노인세대에게는 물질적인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현재 7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 쌀은 그들만의 특별한 정서가 있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매주 쌀을 나누어 드리면 많은 양은 아니지만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쌀을 받아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쌀은 노인전도에 아주 효과적인 전도물품이다.

#### 나. 예배

노인들이 매주 실버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노인들이 불편함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맞이한다. 교회가 언덕 위에 위치해 있기에 언덕을 올라오신 노인들을 기쁘게 환영하며 맞이하는 게 중요하다. 안내 위원들은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 언덕 입구에 나가 노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예배는 찬양과 말씀, 결신의 기도과 축도 순서로 예배를 진행한다. 예배이기 때문에 가요나 세속적인 노래는 전혀 부르지 않고 오직 찬송과 가스펠을 부른다. 찬양을 드리며 다른 노인들과 교제 통해 노인들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도록 한다. 이때 말씀은 가장 복음적인 말씀을 준비해서 열정적으로 전해야 한다. 죄, 십자가, 보혈, 복음, 천국과 지옥 등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매주 전한다. 쌀을 목적으로 왔더라도 일단 성전에 모인 노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주 전해지는 말씀 속에 양육이 되어야 한다. 양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 쪽지가 중요하다. 매주 설교내용을 노인들이 읽기 쉽도록 13포인트 크기의 글씨로 말씀 쪽지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말씀 쪽지를 버리지 않고 매일 집에서 그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도록 유도한다. 년 1회 말씀쪽지를 버리지 않고 잘 모은 노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데 매년 10명 가까운 노인들이 말씀쪽지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잘 모으고 묵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설교 말씀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시급성을 가지고 다른 말씀보다는 복음의 핵심을 매 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버처치 예배는 노인들이 다른 노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노년기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말씀의 조명함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정립함으로 교회만이 제시 할 수 있는 노인목회 사역이 되고 있다.

### 다. 관리

실버처치에 참여 하는 노인들을 대할 때에는 최대한 환영과 존중을 해드리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성경적 노인에 대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노인들을 향해 기쁘게 환영 해드린다. 본인은 매주 노인들 앞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부터 드린다. 어르신들을 향한 존경의 표현이며 존중의 태도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관리는 부담을 주지 않는다. 노인들은 조금이라도 부담이 생기면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참석하는 노인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묻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등록된 교인 숫자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실버처치에 오시는 노인들이 빠른 시간 내에 등록을 하고 주일예배에 참석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노인들이 교회가 편안해지고 서로 친밀해져 마음이 열리기 전에 부담을 주면 실버예배도 나오지 않는다. 실버처치의 관리는 교회 등록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분의 이름이 등록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sup>80)</sup>

실버처치는 지역의 노인들에게 교회만이 제시할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자신의 남은 노년기 삶을 평안과 감사로 해석하게 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돕는다. 또한 정해진 시간과 평안한 장소에서 교회가 제공하는 사랑과 돌봄의 울타리 가운데 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노년기 외로움을 덜고 함께 하는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가좌제일 교회의 실버처치 운영과 실제

### 가. 준비와 시작

가좌제일 교회는 늘어나는 노인세대에 대한 마음을 품고 2016년 초부터 기도를 하고, 2016년 3월에 노인전도에 관심 있는 성도 6명이(본인 포함) 실버처치 세미나에 참석함으로 시작 되었다. 세미나 참석 후에 3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지역의 노인을 향해 초청장을 들고 나섰다. 실버처치 초대장과 전병과자를 한 바구니씩 들고 거리와 공원 그리고 지역노인정 7곳을 찾아다니며 노인들을 초대하였다. 초대장에는 쌀 쿠폰

80) 윤인규, "실버처치 사역 지침," 가나안 정복 선교센터, 2016, 46.

도장이 찍혀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면 쌀을 1킬로그램씩 나누어 드린다는 것을 소개하였다. 특히 지역의 노인정은 노인정 회장과 사전 연락을 통해 약속을 잡고 방문 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찾아가 초대 하였다. 3주간 전도 후 4번째 주 토요일(4월 16일) 오후 2시에 교육관 소망 홀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2016년 4월 16일 첫 예배 때에는 실버처치 전도 전문가 윤인규 목사가 함께 참석하여 진행을 도왔다. 첫 예배에는 떡과 다과를 준비하여 노인들을 환영 했으며 앞으로 매주 드려질 예배에 지속적 초청을 하였다.

#### 나. 예배 및 운영 현황

첫 예배를 드린 후 매주 토요일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렸다. 2016년 한해 총 41회 예배를 드렸으며 평균 120명이 참석 하였으며, 2017년 한 해 동안은 총 50회 예배가 드려졌으며, 연간 총 참석 인원은 6,256명이 참여하였다. 매주 평균 125명이 참석 했다는 결과이다.

당시 매주 수요일 낮에는 본 교회 성도들 중 수요일 저녁에 참석하기 어려운 노인 성도들이 낮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실버처치가 시작되면서 수요일 낮에는 본 교회의 노인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와 토요일에는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예배가 병행되어왔다. 2016년부터 2017년 2년 동안 노인들을 위한 예배가 매주 두 번씩 드려졌다. 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실버처치에 참여 하는 노인들이 교회를 편안하게 느끼고 봉사자들과 농담도 할 만큼 친밀해 졌고, 2018년 1월부터는 이 두 예배를 하나로 모아 드리게 되었다. 2017년 말부터 실버처치 예배요일 변경에 대한 안내와 공고를 하였고 본 교회 노인 성도들에게도 예배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연합의 의미를 공유하였다.

실버처치가 수요일 낮 예배로 옮겨 왔으나 모든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와 예배위원 및 예배의 모든 형식은 기존 실버예배의 형식을 지켜감으로 실버처치의 노인들이 다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기존의 노인 성도들도 동일한 복음 설교로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다.

예배 요일이 바뀌는 과정 속에 실버처치의 참여 인원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으나 현재는 70여명으로 안정적으로 정착 되어가고 있다. 본 교회 노인 성도들이 드렸던 수요일 낮 예배 인원이 평균 60여명이었으며 실버처치의 예배인원은 평균 120명~130명

이었는데 현재 합쳐진 수요 낮 예배에도 평균 120~130명이 모이 있어 전체 예배인원에는 큰 차이가 없다. 본 교회 성도 60여명과 지역의 노인 70여명으로 거의 50퍼센트 씩 참석하는 상황이며, 본 교회 성도들과 지역의 노인들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 3. 평가

실버처치를 시작한 이후 매주 평균 120~130명의 노인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복음을 듣고 있다. 처음 시작 할 때에는 참석자들이 100퍼센트 가좌제일교회 성도가 아니었다. 물론 그 안에는 타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분들이 오히려 예배의 분위기를 은혜롭게 인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외에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노인들이 매주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은 지역복음화와 노인선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노인들은 매주 복음을 통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다시 세우며, 삶을 재해석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신앙공동체는 노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과 사회적 단절로 인한 외로움을 극복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것인 본 교회 성도들 중에 20여명의 봉사자들이 세워져서 안내와 찬양, 예배로 실버처치 노인들을 정성스럽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버처치 사역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인 노인들만이 아니라, 그 동안 잠자고 있었던 본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영혼들을 향한 열정들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예배를 섬기는 찬양 팀에는 젊은 봉사자도 있지만, 본 교회의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함께 세워지면서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있다. 안내로 섬기는 봉사자들도 영혼을 섬기는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있다. 초 고령화 사회는 무엇보다 역할 활동의 제한과 관계가 감소되고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 그러나 실버처치를 통해 노인 성도들에게 섬김과 봉사의 장을 제공함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의미 있고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고 있다.

단점은 재정적으로 매주 120킬로그램의 쌀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한 사람에게 1킬로그램은 적은 양이지만 120여명에게 매주 쌀을 제공하는 것은 준비과정부터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현재는 선교적 차원에서 교회 재정



과 실버처치를 위한 특별헌금으로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성도들 안에 복음으로 영혼을 잡아야 하는데, 물질(쌀)로 영혼을 잡으려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 청년들 전도를 위해서 많은 재정을 사용하고 노력을 해도 어려운 시기에 쌀을 통해 매주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한 영혼이 복음을 매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된다.

기업의 생명주기(life cycle)를 보면 탄생, 성장, 성숙, 쇠퇴,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이다.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 후 쇠퇴하지 않으려면 끊임없는 변화와 갱신이 요구된다. 가좌제일 교회의 노인목회 실천으로 시작된 실버처치도 마찬가지이다. 시대적 흐름과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계속에서 변화 발전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는 노인들에게 드리는 쌀이 노인들의 정서에 맞는 선물이 되지만 신 노년기의 노인들은 쌀에 대한 마음이 다를 수 있다. 아울러 수요 낮 예배로 정착되어가는 실버처치를 중심으로 좀 더 전문적인 노인 목회를 실천하기 위해 노인 소그룹 모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현대인들은 기술 발전 덕분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항상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은 이전보다 더욱 고독하며 심한 타인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젊은 세대 뿐 아니라 노인세대에게 단절은 더욱 심하게 느껴진다."<sup>81)</sup>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관계와 소속에 목마른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지역 교회는 전 세대를 막론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소그룹이 필요하다. 교회가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환영하는 공동체가 될 때 시대적 목마름을 채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교회 노인 성도들과 지역의 노인들이 대 그룹으로 모여 드리는 예배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소그룹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사례 조사한 대구 동신교회 실버대학의 모델을 벤치 마킹하여 가좌제일 교회 상황에 맞는 예배 후에 소그룹을 형성해 가고자 한다. 본 교회 젊은 봉사자를 담임교사로 하고 처음에는 본 교회 노인성도 중에 반장을 세워 반별로 노인들을 관리 하고 섬기는 것이다.

81) 이상훈, *Reform Church*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5), 55.

반을 나눌 때에는 실버 처치의 운영 원리를 거스르지 않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반을 나누고 교제를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예배 후 쌀을 나누어 주는 장소를 나누어서 담임봉사자를 통해 쌀을 배부 하도록 하면서 매주 같은 봉사자를 통해 쌀을 받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예배 후 자연스럽게 담임 봉사자를 중심으로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안부를 묻고, 쌀을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들의 성함을 알게 되고 반이 소그룹이 형성될 것이다.

이 소그룹을 통한 유익은 노인들의 서로 교제하고 외로움을 나눌 수 있으며, 본 교회 성도들과 더욱 친밀 해 질 수 있고, 노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소그룹 별로 프로그램도 개발 해 갈 수 있으며, 나아가 노인들 스스로 성공적인 노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다.

#### 제 4 절 가좌제일 교회 장기적 노인목회 전략

100세 시대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 교회가 가져야 할 노인 목회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공감하며 가좌제일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을 좀 더 체계화하고, 앞으로 더욱 늘어나는 노인세대와 노인 성도들을 위한 노인목회의 실천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진정 행복한 사회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국가적 위기 가운데 노인목회를 지역 교회 안에서 목회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실버처치를 3년째 실천하고 있는데 노인들을 위한 주중 예배로 정착되었다. 이제는 실버처치의 안정과 함께 사역을 체계화 하고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변화와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앞으로 실버처치를 중심으로 가좌제일 교회의 노인 목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노인목회를 추진하고, 교회 안에서 적용 가능한 모델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 1. 교회 노인목회의 단계별 추진 과정

가좌제일 교회 노인목회의 단계별 추진 과정은 배제 대학교 손의성 교수가 제시하는 교회 노년목회의 단계별 추진 과정 10단계를 참고하여 가좌제일 교회 실정에 맞

게 적용하면서 5단계로 구성하였다.<sup>82)</sup>

1단계에서는 노년 사역위원회 구성한다. 노인 목회를 실천하기에 앞서 교회 안에 노인 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구성한다. 노인사역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모이게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노인사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게 한다. 노인목회는 목회자 혼자서 감당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인 사역 위원회에는 노인성도 뿐 아니라 부교역사 1명, 청장년층의 위원도 2명 정도 포함하여 6~8명으로 구성한다.

공식적으로 노인 사역 위원회가 결성되면 총 5회의 모임을 갖는데, 모임을 통해서 가좌제일 교회 58년 역사를 중심으로 기존에 단 회적, 한시적으로 해 왔던 노인사역이나 정기적으로 해왔던 사역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천 하고 있는 노인 사역들을 재검토한다. 지역사회 노인사역 관련 사역을 하고 있는 전문기관, 정보를 수집한다. 노년층을 위한 설문조사 방법과 내용을 준비한다. 기존에 노인목회를 실천하고 있는 교회를 조사하고 탐방한다.

2단계는 노년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기존에 7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소그룹별로 노년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소그룹별로 설문지를 통해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기존 노인 성도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성공적인 노년의 삶에 대한 인식도 파악한다.

3단계는 노인목회의 목적과 목표를 수립하고 단계별로 비전을 공유한다. 먼저 당회를 통해 가좌제일 교회의 노인 사역을 위한 비전을 나누고 지역 교회로서 노인 목회를 위한 목적과 목표를 수립한다. 또한 노인 사역 위원회를 통해 준비된 자료를 근거로 우선 실시할 노인 사역들을 결정한다. 기회가 되는 데로 강단을 통해 성도들에게도 노인목회의 필요성과 성공적인 노년의 삶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시킨다. 현재 실천 중에 있는 실버처치를 중심으로 본 교회의 인적, 물적, 공간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금 실천 할 수 있는 노인 사역 프로그램과 앞으로 중, 장기 적으로 실천 하고자 하는 사역들을 발굴하고 개발한다.

4단계는 인적 물적 자원을 파악하고 노인사역을 개발한다. 교회 안에서 노인 사

82) 손의성, “성공적인 노년목회와 사별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돌봄)위원회 세미나 주제발제, 2014년 11월.

역을 위한 핵심 인물을 파악하고 접촉한다. 노인 소그룹의 순장 및 은퇴 권사들에게 노인 사역의 비전을 나눈다. 또한 노인목회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사회 노인들 중 핵심 인물들(예: 지역 내 노인정 임원, 통 반장)을 파악하고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노인 사역과 연계 할 수 있는 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과의 관계도 형성하여 함께 연계하여 실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개발하고 협력한다. 또한 기존 교회의 행정조직이나 모임을 파악하고 봉사자들을 발굴한다.

5단계는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평가한다. 당회에서 우선 결정된 노인 사역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행정 조직과 담당자를 선정하고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정해진 일정대로 노인사역을 실천한다.

노인사역은 공교회로써 그리고 유기적 교회로서 가좌제일교회의 비전과 존재방식에 합해야 하며 노인목회의 목적과 비전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노인 사역은 프로그램이 마쳐지는 대로 또는 정기적으로 반드시 평가를 한다. 평가 내용은 실무 담당자의 평가와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 한 노인들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 2. 가좌제일교회 노인목회의 방향성

가좌제일 교회의 노인목회는 교회가 공교회로서 지역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위에 세워져야 한다. 따라서 노인목회의 대상은 교회 내 노인성도 뿐 아니라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가좌제일 교회 실버처치의 대상은 지역노인과 노인성도 비율이 거의 50퍼센트로 비슷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대구 동신교회의 실버대학은 지역의 노인들이 80퍼센트 이상으로 지역 복지에서 접근한 노인목회였으며,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본 교회 노인성도 중에서 제한된 인원만이 노인목회의 대상이다.

앞으로 가좌제일교회의 실버 처치는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을 시도하고자 한다. 동신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반별 운영체제를 도입하여 노인들을 관리하고 노인들을 위한 소그룹을 형성해 가고자한다. 또한 반에 배치되기 전에는 반드시 복음제시와 영접기도의 과정을 실천할 것이다. 반별 운영은 기존의 실버처치의 40대-50대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담임교사를 세우고 노인들 중에 반장을 세워 노인 소그룹을 통한 코이노니아를 형성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추구하는 차별화되

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본 교회의 상황에서 가능한 것부터 프로그램을 하나씩 개발 해 나아가고 자한다.

실버처치는 가좌제일교회의 주일에 행해지는 교회학교와 마찬가지로 주중 노인들을 위한 교회학교로 세워져 갈 것이다. 이미 지난 2년 동안의 실버처치의 실천으로 지역의 노인들과 교회 내 성도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모임으로 예배 부분은 잘 정착이 되었다고 평가 된다. 앞으로 가좌제일 교회 실버처치는 예배 후 반별 모임을 통해 통합적 노인목회의 모델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노후를 위해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장이 될 것이다.

### 3. 노인목회의 모델

현재 한국 교회가 실천 중인 노인목회 사역은 주로 노인 대학이나 실버 대학 같은 노인 학교 모델이나, 재가 방문이나 요양서비스 모델, 무료 급식이나 무료 생필품 지원모델, 건강 지원 서비스 모델 등이 있다. 노인들을 위한 교육이나 서비스 지원 모델이 그 주를 이루면서 1970년대부터 교회 안에서 노인들을 섬기기 위한 사역이 시작되어 왔으나 지금까지도 큰 틀에서 변화나 발전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노인 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바뀌었고, 신 노년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노인사역에도 변화가 요구 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역교회가 노인목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노인목회를 실천해야 한다.

배제 대학교 손의성 교수는 “성공적인 노인목회와 사별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강의에서 교회 노인목회 모델로 시니어 사역 모델을 소개 하였다.<sup>83)</sup> 교회의 노년목회 사역 모델로 다음의 일곱 가지의 요소를 고려한 S.E.N.I.O.R.S 사역 모델이 제시될 수 있다. 가능한 교회 노년목회 사역 모델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S: Spirituality(영성 모델)

- 성경공부, 기도모임, 기독교교육, 수련회, 예배 참석 등

E: Education(교육 모델)

- 특강,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노인의 관심사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 등

83) 손의성, “성공적인 노년목회와 사별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N: Nutrition and Health(영양 및 건강 모델)

- 건강 관련 교육, 식생활 관리, 혈압 측정 등

I: Intergenerational Opportunities(연령 통합적 경험 모델)

-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 및 예배, 교육 등에 모든 연령층을 함께 참여시키기, 요양원 등 노인시설에 학생 연계 봉사활동 등

O: Outreach/Service(봉사/섬김 모델)

- 노인들을 통한 교육, 돌봄, 무료급식, 카폴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전개 등

R: Recreation(여가 모델)

- 다양한 취미활동, 캠프, 레저 스포츠, 여행 등

S: Social Activities(사회참여 모델)

-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

이날 손 교수는 노년목회 교육과정의 핵심 주제를 개발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노후를 살아가고 있다고 추천된 40명의 노인들에 대한 성공적 노후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발표하였는데 유지, 목표지향, 균형잡기, 완충, 조화의 다섯 가지 핵심 주제는 본 교회 노인목회 모델을 확립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첫 번째 핵심 주제는 ‘유지’(維持, maintenance)이다. ‘유지’는 노년기가 되어서 이전 시기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기능과 수준을 가능한 한 손실되지 않고 유지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노년기가 되면, 자연히 신체기능이 약화되고, 노년기 질환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이 강화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사회경제적인 소외를 경험하기 쉬운데, 가능한 한 이러한 상실과 쇠퇴를 방지하는 것이 첫 번째 노인교육의 주제가 된다. 이 주제의 구성 요소로는, 신체건강 유지, 질병 피해가기, 건강관리능력, 신체기능유지, 인지기능 유지, 경제력 유지, 노후생활설계, 경제적 지원, 활동 유지, 사회적 관계 유지, 주거안정 등이 있다.

두 번째 핵심 주제는 ‘목표지향’(目標志向, orientation)이다. ‘목표지향’은 남은 인생 가운데 삶의 의미와 목표를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설계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탐색하고 성공적으로 감당함으로써 성취감을 얻는 것이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삶의 의욕을 잃고 최소한 20-30년 이상의 노년기를 무위(無爲)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

가 들어서도 여전히 젊은 시절과 마찬가지로 삶의 비전과 목표를 갖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낭비하는 삶이 아닌 활동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전히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케 하며, 개인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주제의 구성 요소로는, 삶의 의미, 노후설계, 목표의식, 지향가치 소유, 사회적 기여, 봉사, 생산적 활동, 사회적 관심, 개인적 성장, 영적 성장 등이 있다.

세 번째 핵심 주제는 ‘균형(均衡)잡기’(balancing)이다. ‘균형잡기’는 삶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면서 성공적인 삶의 적응을 이루는 것이다. 노년기는 특히 질병, 은퇴, 사별 등 삶의 변화가 큰 시기이므로, 이때 자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삶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주제의 구성 요소로는, 노화에 따른 자기 이해와 현실 인식(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 이해), 연령에 따른 역할 이해, 노년기 삶에 익숙하기, 자율성, 주도성, 자기통제 및 조절, 자립생활, 환경의 조절 등이다.

네 번째 핵심 주제는 ‘완충’(緩衝, buffering)이다. ‘완충’은 노후에 경험하게 되는 삶의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내적, 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노년기에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삶의 문제와 고통에 대해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신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하게 하며, 충격에 따른 빠른 회복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 주제의 구성 요소로는, 긍정적 수용, 적극적인 삶의 태도, 정신건강(심리적 안정감), 삶의 만족도, 효능감, 의미부여(신앙적 해석 능력, 지혜, 인지능력), 자아 존중감, 삶의 긍정적 의미발견, 자아통합, 자원 확보(가족자원, 사회적 자원, 영적 자원), 위험 대비, 탈 고립감, 복지적 대책 및 지원, 죽음의 수용 등이다.

다섯 번째 핵심 주제는 ‘조화’(調和, harmony)이다. ‘조화’는 자신과 가족 및 이웃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다양성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는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이 주제의 구성 요소로는 수용과 관용, 타협능력(자신 및 타인, 현실과 이상), 환경에의 숙달, 통합능력(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유연성 등이다.<sup>84)</sup>

손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노인목회를 위한 모델로 SENIORS 모델과 심층 면접 조사해서 얻은 노년목회 교육과정의 주제는 앞으로 가좌제일교회 실버처치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에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가좌제일교회가 세상을 향해 공적 교회로서 선교적 관점에서 감당해 왔던 사역들을 해석, 정리해보았다. 시대적 흐름과 필요에 의해 시작된 노인목회 사역도 개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세상과 소통하고 지역과 함께 해온 가좌제일 교회의 역사적 사역들 위에 세워져 가고 있다. 비록 실버처치 사역이 북가좌동의 한정된 노인들을 위한 사역이지만 앞으로 신 노년기의 지역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필요를 공급하고 영적 공동체인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고령사회 노인문제의 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한다.

---

84) 손의성, “성공적인 노년목회와 사별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 제 6 장

## 결 론

본 논문은 올해로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국가적으로 노인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참여가 급증하고 있는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생활 방식의 변화를 초래 하고 있는데, 지역교회의 목회자로서 최근 몇 년 동안 체감하는 교회의 고령화를 확인하였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는 목회 대상자들의 고령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교회가 맞이하게 될 고령교회에 대한 방안으로서 시작하였다. 지역교회의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서 노인목회가 반드시 필요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아래 고령화 시대에 지역교회의 노인목회 방안을 본 연구자의 목회 현장인 가좌제일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실버처치를 중심으로 연구해 보았다.

과거에는 교회학교를 통해 부모들이 전도되었으나, 이제는 노인세대를 통해 자녀와 손주 세대들이 전도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노인세대들은 자신의 남은 삶의 시간을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와 복음전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세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전도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지역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노인목회의 목적은 공교회로서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노년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적으로 구원의 확신과 천국소망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며, 정서적인 외로움을 교회공동체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극복하고, 육신적으로 섬김과 돌봄을 실천하는 것이다. 한 교회의 노인목회의 실천은 작은 일일 수 있으나 지역의 많

은 교회들이 함께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실천 한다면 국가, 사회적인 노인 문제에도 대안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자료는 고령사회와 노인사역에 대한 책과 논문을 통해 문헌조사를 하였으며, 한국 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공영방송과 공공신학에 대한 방송자료 및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또한 이미 노인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앞장서서 노인목회를 실천하고 있는 대구 동신교회와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사례연구 하였으며, 본 연구자의 목회 현장인 가좌제일 교회의 노인 사역과 실버처치를 통한 현장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제 2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지역교회의 고령화를 현실 분석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저 출산과 압축형 고령화로 인한 한국 사회의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정치적인 혼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하류노인들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노인 목회의 대상인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건강한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노년의 개념은 노인목회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현실 분석이다.

저 출산과 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현실적으로 목회 현장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회학교의 감소로 매년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회 학교 자녀들과 함께 젊은 층의 감소는 재정과 헌신적인 젊은 세대 봉사자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의 허리가 되는 30대, 40대, 50대 연령층의 감소는 노인세대와 젊은 청년세대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교회는 새로운 시도와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있다.

전략적 차원에서 노인목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될 것이다. 교회가 지역의 노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선교적 차원에서 중요한 목회방침이다. 지역의 노인들에게 복음은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회 안의 노인 성도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인목회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성도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과 권리 회복이 필요하고 존엄한 죽음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연대하는 삶을 위해서 노인 성도

들은 교회와 가정과 지역 안에서 통합적인 노인의 삶이 필요하며, 노인들 스스로 능동적인 삶의 태도 변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교회는 좀 더 전문화된 노인사역으로 목회적 돌봄과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또한 노년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을 언급 하였다.

3장에서는 고령사회와 노인목회를 위한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노인의 이해를 살펴보았다. 구약성경을 근거로 공경의 대상으로서의 노인, 지혜자로서의 노인, 권위와 결정권자로서의 노인, 신체적 약자로서의 노인과 노인상에 대해 살펴보았고, 신약성경에서도 공경의 대상으로서 노인, 걸 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노인, 구제의 대상으로서의 노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노인목회의 신학적 원리로 공공신학의 기원과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보면서 소명으로서 공공신학, 코이노니아로서 공공신학을 피력하였다. 또한 사랑과 언약에 대한 기독교 윤리 차원에서 노인목회의 근거를 해석해 보았다.

제 4장은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이미 노인목회를 목회 현장에서 실천 하고 있는 교회들 중에 지역의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구 동신 교회의 실버 대학과 교회안의 노인 성도들을 위한 차별화된 노년목회를 실천하고 있는 일산 거룩한 빛 광성 교회를 탐방하여 사례 연구를 하였다. 각 교회의 사역배경과 동기, 현황을 살펴보고 각 교회의 노인사역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대구 동신 교회의 실버 대학은 지역의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평생 교육의 차원에서 노인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특별히 동신교회의 실버대학은 목회적 차원에서 5회째 실버 대학에 참석 한 노인들에게 전도폭발 훈련을 받은 성도들과 연결하여 복음제시와 결신의 기도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실버 대학이 그냥 교양교육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구원과 구원받은 노인들의 예배의 삶 그리고 노년의 삶에 필요한 재교육과 반별 돌봄 사역으로 노인목회를 체계적으로 잘 실천하고 있다. 반면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노아스쿨은 광성교회 노인 성도들 중에서 사전 등록된 정해진 인원을 대상으로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학교를 운영함으로 참여도와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신노년기의 노인들에게 필요한 앞선 노인목회를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제 5장에서는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본인이 목회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노인 사역 프로그램과 실버처치를 중심으로 노인 목회 사역 활성화 방안들을 제시 하였다. 이를 위해 공교회로서 가좌제일 교회가 지역을 섬기며 지역사회와 함께 해 왔던 사역들을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재해석 해 보았으며, 그 사역의 기반위에 지역의 노인들과 기존 가좌제일 교회 노인 성도들을 위한 주중 예배 모임으로 실버처치를 소개 하였다. 또한 목회 현장에 노인목회를 정착시키기 위한 모델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자가 노인목회를 고민하면서 오늘날 고령화되어가는 한국의 인구 구조와 목회 현장에서 불편한 진실을 접하게 되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고령교회를 대비한 노인목회의 준비가 시급하다. 아직도 많은 한국교회는 노인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에 기초하여 노인을 의존적이고 나약한 존재로만 이해한다. 그러나 노년목회는 노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교회 사역인 동시에 선교적 교회사역의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이 시대의 노년목회는 섬김과 돌봄의 사역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거룩한 빛 광성 교회가 선보이고 있는 신노년 시대에 적합한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풍성한 노년기를 보내며 효과적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노년기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의식을 심어주고 구원의 확신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노인 스스로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도 수동적이기 보다 능동적이고, 부정적이기 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노인목회 교육과정의 핵심인 유지, 목표지향, 균형잡기, 완충,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비단 노인들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앞으로 노년의 시기를 접하게 될 젊은 세대에게도 노년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노년기에 대한 소망을 주게 될 것이다.



8.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착하게 살면 ②봉사를 많이 하면 ③예수님을 믿음으로 ④기타( )

9. 교회 다녀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생각해 보겠다. ②자녀에게 물어보겠다. ③전혀 없다 ④기타( )

10. 실버대학에 바라는 것은?

①무료급식 ②노인복지 ③노인상담 ④기타( )

※ 설문지를 적극적으로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신실버대학과 더불어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며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 부록 2.

## 봉사자 지침서

## [자기점검]

나는 순종적이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학생의 영혼을 사랑한다.  
 힘을 다하여 서로 섬긴다.  
 봉사자간 서로 화평하게 지낸다.

## [봉사자 모두의 마음]

1.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웃으면서 예의 바르고 공손한 자세로 대한다.
2. 학생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3.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여기고 보람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긴다.

## [안내할 때의 자세]

1. 내 부모를 대하는 태도로 친절하게
2. 밝은 표정으로 맞이하기
3. 사랑과 진실 애정 어린 인사말
4. 인사말 :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 [학과담당교사 지침서]

1. 시간준수(아침조회 9:40-10:00)
2. 특강 시간에 모든 직원과 교사는 함께 참여한다.
3. 출석부를 정확히 기재하여 교무부장에게 제출한다.
4. 신입생을 확인해 주세요.
5. 결석한 학생에게 사랑의 전화를 한다.

6. 학교소식을 전해드린다. 출석시 관심을 가지고 안부 묻는다.
7. 결석자 현황 연구부 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한다.
8. 정장차림, 명찰 착용
9. 호칭은“어르신” “어머님” “아버님” 으로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용하지 않는다.
10. 수업 시 칭찬과 격려를 한다.
11. 천천히 또박 또박, 저음으로 강의한다.
12. 핸드폰이 울리면 끌 수 있도록 무안하지 않게 지혜롭게 말한다.
13. 이름을 암기하여 불러드린다.
14. 가정의 안부를 살핀다.
15. 오고 가는 차편까지도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1. 국내서적

- 강운정. *늙는 늙지 않는다? - 늙와 노화*, 서울: 브레인미디어, N. D.
- 강창희.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 서울: (주) 쌤앤파커스, 2017.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4.
- 김경수. '목회적 돌봄사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서울: 기독교연합신문, 2010.
- 김동배. "노인의 사회참여," *복지칼럼*. 2015년 5월호.
- 김병권. *한국교회 갱신의 관점에서 본 공공신학*. 한국복음주의 윤리학회, 2014.
- 김은수. *초고령사회의 복지주거환경 및 자원의 경제학*. 서울: 좋은 땅, 2015.
- 김재영. *직업과 소명*. 서울: IVP, 1989.
- 김정준. *기독교교육논총 제50집*, 2017.
- 김중은.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5.
- 김찬호 외. *2017 : Fraser, 2016*.
- 김현진. "고령화의 사회. 정치적 영향 -한국과 일본의 경우," *사회연구*, 2004년1호.
- 김희신. *성경적 노인관에 대한 이해*. 서울: 기독교한국신문, 2016.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 박동숙. "고령화 사회의 재가복지를 통한 노인목회 방안 연구," *총신대 신학박사학위 논문*, 2011.
- 배호진. "노인목회의 필요성과 교회적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 세계인권선언문.
- 손영규. "지역교회에서의 노인사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 *폴러신학교 목회학 박사 학위 논문*, 2015.
- 손의성. "성공적인 노년목회와 사별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돌봄)위원회 세미나 주제발제*, 2014.

- 양동욱. "공적설교'의 방향제시." 한국설교학회 '제19차 봄학술대회, 2014.
- 오택현. *구약성서에 나타난 노인, 성경으로 보는 노인문제*. 서울: 성서마당, 2006.
- 우병훈. *공공신학 교육을 위한 교본으로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고려신학대학교, 조직신학, 2016.
- 유엔 사회권 규약
- 윤인규. *교회 안에 교회 실버처치*. 서울: 가나안정복선교센터, 2014,
- \_\_\_\_\_. *목회 왕도의 길*. 서울: 가나안정복선교센터, 2015.
- \_\_\_\_\_. *실버처치 사역 지침*. 서울: 가나안 정복 선교센터, 2016.
- 이건영. *아름다운 동행*. 서울: 예찬사, 2003.
- 이상훈.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개혁과 고령화사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5집*, 2013.
- \_\_\_\_\_. "공공신학적 주제로서의 소명과 코이노니아 관점서 본 고령화 사회." *기독교 사회윤리 제28집*.
- 이상훈. *Reform Church*.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5.
- 이성호. *고령사회, 노인의 존엄성과 권리 보장*. 서울: 서울신문, 2016.
- 장신근. "공공신학의 이론적 지형과 한국적 적용," "한국교회의 공적책임." 제6회 연구위원회 세미나.
- 제자원. *그랜드종합주석 제17권*. 서울: 성서아카데미, 2004.
- 정성국. *삶 속에 적용하는 life 삼위일체 신학*. 서울: 홍성사, 2007.
- 정성진.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 정영식. "교회에 있어서 노인은 누구인가?." *풀빛목회*, 1982.
- 최경은. "성서에 나타난 노인 토포스." *유럽사회문화*, 17호 2010.
- 최경환. *교회 갱신을 위한 공공신학 활용 지침*. 한국복음주의 윤리학회, 2014.
-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 하용조 편찬. *비전성경사전*.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1.
- 한국복음주의기독교교육학회. *복음과 교육 제11집*, 2012.
- 2017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

2018년 대구동신교회 매뉴얼.

## 2. 번역서적

Bevere, John. *존 비비어의 존중*.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9.

Icenogle, Gareth Weldon.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김선일 역, 부산: SFC 출판부, 2007.

Keller, Timothy. *센터처치*. 오종향 역, 서울: 두란노, 2016.

\_\_\_\_\_. *일과 영성*. 최종윤 역, 서울: 두란노, 2013.

Long, Thomas G. *기독교 장례 찬송하며 동행하라*. 황빈 역, 서울: CLC, 2017.

\_\_\_\_\_. *좋은 장례*. 황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Mercer, Tom. *오이코스*. 김지혜 역, 서울: 미니스트리 디렉, 2009.

Migliore, Daniel L.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신옥수, 백충현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Moltmann, Jurgen.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광미숙 역, 서울: 동연, 2009.

Ryan, Dale Juanita. *영적성장의 사다리*. 정동섭, 정지훈 역, 서울: 조이선교회, 2006.

Shuller, Robert. *미래를 여는 힘*. 정성묵 역, 서울: 두란노, 2006.

Turnier, Paul. *고독 해방의 심리학*. 윤경남 역, 서울: 보이스사, 1997.

\_\_\_\_\_. *폴 투르니에의 치유*. 정동섭, 정지훈 역, 서울: 도서출판 CUP, 2009.

Valterbolff, Hans. *구약성서의 인간학*. 문희석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76.

Vanhoozer, Kevin. *목회자란 무엇인가*. 박세혁 역, 서울: 포이에마, 2016.

Volf, Miroslav. *광장에 선 기독교*. 김명운 역, 서울: IVP, 2014.

## 3. 외국서적

Lehmann, Paul. *Ethics in a Christian Context*. Material, 1964.

## Vita of Ki Won Jang

###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Gajwa Jaeil Presbyterian Church, Seoul

### Persona Data:

Birthdate : February 20, 1970.

Marital Status: Married to Nam Suk Cho with two children,  
Dae Hyun & Jong Hyun.

Home Address: EungArm-ro 33, Hyun Dae Apt 102/1403,  
Sedaemoon-gu, Seoul

Denomin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October 29, 1999

### Education:

B. A.: Anyang University, KyungKi-Do, 1995

M. Div.: Anyang University, KyungKi-Do, 1998

B. A.: CFNI(Christ for the Nation) Pastoral, Dallas, 2006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8

### Personal Experience:

02/2011 to present: Senior Pastor of Gajwa Jaeil Presbyterian  
Church, Seoul

10/2007 to 01/2011: Senior Pastor of Jackson Korean Presbyterian  
Church, Jackson Mississippi

12/1999 to 09/2007: Assistant Pastor of Korean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Dallas Texas

10/1996 to 11/1999: Children Director of Gajwa Jaeil Presbyterian  
Church, Seoul